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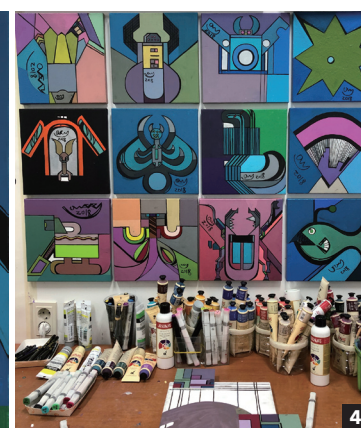
한승민

이 달의 표지 작가

2017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9, 10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 전시 〈소리없는 울림〉을 시작으로 2014년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베이징 공왕부미술관에서 개최한 〈中韓전〉 등 다양한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8년 〈NADA ART & MUSIC FESTIVAL〉에 초대되어 작품을 음악과 콜라보레이션해 선보였다. 오는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활갤러리에서 초대전 〈그림 속 이야기〉를 연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음악가가 흥겨운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이 흥미롭고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는 한승민 작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습지 모퉁이에 꼬적거렸던 그림과의 인연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각언어를 구축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인상 깊은 기억들을 작업의 모티브로 가져오는 작가는 솔직한 자신의 내면이 담긴 그림들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

표지 작품 〈월광룡〉은 2014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본 후 투슬리스가 보름달이 뜬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재해석해 표현했다. 작가의 생활과 밀접한 소재들(영화, 곤충, 식물, 음식, 영웅 등)은 작품에서 그만의 유틸리티 있고 개성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로 마치 신조어처럼 재탄생한다. 더불어 작품의 조형적 특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검은 선, 분할된 면 그리고 강렬한 색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화면은 일정한 채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색면과 선으로 혼합되어 마치 색면추상을 보는 듯하다. 연필로 시작된 스케치는 마커와 붓펜에 의해 수많은 선과 면으로 나뉘고, 세분화된 면들은 다시 아크릴 물감으로 여러 번 그 색을 바꿔가면서 화면의 조화를 찾아낸다. 이 과정은 여러 번 반복되며 작가에게 긴 시간과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작가는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며 작업의 의미와 진정한 마음의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 나아가 작가는 평면회화와 더불어 미술과 음악, 미디어, 문학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 오늘도 '아지트'라고 부르는 자신의 작업실을 찾는다.



표지 작품

〈월광릉〉 acrylic on canvas | 100×100cm | 2014

1 〈HALLOWEEN〉 acrylic on canvas | 91×73cm | 2018

2 〈Animal Cube〉 acrylic on canvas | 91×73cm | 2018

3 〈신과 함께1〉 acrylic on canvas | 145×110cm | 2018

4 〈소품〉 acrylic on canvas | 25×25cm | 2018



06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한승민

테마 토크

예술적 연대를 꿈꾸는

‘열다섯 해 서울문화재단’

06 서울문화재단 15주년을 기념하며

문화와 예술이 공기처럼 느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08 서울문화재단 전·현직 대표이사의 만남

예술가와 시민 사이, 접점을 고민하다

사람과 사람

20 문화인 배우 양희경

26 작가의 방 윤석원 배우 ·

임애련 ‘놀공발전소’ 공동 대표 · 안애순 현대무용가

30 진실 혹은 대담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34 예술가의 밥그릇 책 처방사 김이듬

—

36 서울 찰나

20



42



이슈 & 토픽

38 쟁점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 제공 의무화 향한 엇갈린 시선

40 쟁점 2 양주시립예술단 해고 논란

42 화제 1 개관 10주년 맞이한 남산예술센터의 2019년 시즌 프로그램

46 화제 2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50

공간, 공감

- 50 공간 1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
- 52 공간 2 꽃 피는 책 & 숲 공작소
- 54 공감 1 공연 <새남곶나거든>과 <시>
- 56 공감 2 전시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와 <Min Joung-Ki>
- 58 공감 3 책 <서울 백년 가게>와 <1784 유만주의 한양>
- 60 공감 4 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와 <더 와이프>
-
- 62 예술적 상담소



64



SOUL OF SEOUL

- 64 메모리 인 서울 광화문광장과 이순신 장군 동상
- 6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가짜 황석영을 만나
- 68 서정민의 썰(說) 이문세와 이영훈
- 70 장일범의 음악 정원으로 로시니와 <윌리엄 텔>
- 72 서울 건축 읽기 선농단 역사문화관
- 74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 윤기은 감독의 <우리들>

- 76 3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84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씨네21(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디자인·사진 씨네21(주), 조현우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http://magazine.sfac.or.kr>
발행일 2019년 2월 28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의 개인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예술적 연대를 꿈꾸는

‘열다섯 해 서울문화재단’

문화와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자 탄생한 서울문화재단이 오는 3월 15일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문화도시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지런히 실천에 옮겨온 시간이다. 3월호 ‘테마 토크’에서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서울문화재단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재를
가능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일상에 예술이라는 침표를 찍어온, 예술이 모두의 삶
속에 공기처럼 존재하길 바라며 여전히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서울문화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화와 예술이 공기처럼 느껴지는



그날을 기대한다

서울문화재단 15주년을 기념하며

“서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자 태어났습니다. 합리적인 지원과 창의적인 문화사업으로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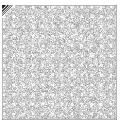
재단의 설립 취지이다. 여전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간결하지만 진지한 이 문장은 15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늘 뛰게 했고, 나아가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갖게 하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러한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늘 자유로운 상상력이 있었고 크건 작건 행동으로 옮겨보는 진지한 실천이 있었으며 그 피드백을 받아 성장해가는 단단함이 있었다.

- 1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
- 2 서울거리예술축제 모습.
- 3 바람난 미술 예술장터.



무한한 상상의 힘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예술이 그 힘을 펼쳐낼 수 있는 곳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서 언제나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기초문화의 힘을 다시 키우고자 한 ‘책 읽는 서울’, 우리 삶 속에 예술을 공기처럼 스며들게 했던 ‘서울거리아티스트’, 서울 곳곳의 소소하고도 다양한 문화공간과 이야기의 흔적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간 ‘문화예술탐방’ 등이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내버려둔 공간을 재해석한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작은 공원과 아파트 거주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서울광장, 궁, 그리고 한강을 문화를 매개로 시민이 모이는 최대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우리의 상상력은 그곳을 축제가 일어나는 생생한 현장으로 만들었다. 덕분에 ‘하이서울페스티벌’, 이제는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진화한 서울의 대표 축제는 예술이 선사하는 일탈을 한껏 누리게 한다. 또한 정형화된 공간에 예술을 불어넣은 ‘시청사모뉴먼트’와 ‘고궁뮤지컬’은 예술콘텐츠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 ‘바람난 미술’은 미처 선보이지 못한 예술가의 예술작품을 세상 밖으로 불려내 서울 곳곳의 소소한 공간에서 전시되도록 하고 예술작품이 대여 혹은 판매가 되도록 기회를 열어줬다. 예술가들이 다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했으며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갤러리로 바꾸었다. 우리가 제공하는 문화콘텐츠가 아니라 시민 개개



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시작된 '메모리 인(人)서울 프로젝트'는 시민 개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곧 문화콘텐츠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세대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선례로 화자되고 있다.

서울시 정책과 어우러져 그 영역이 확장된 사례에도 우리의 상상력은 그 힘을 발휘했다. 문화예술이 매개가 되어 도시재생과 문화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 창작공간은 예술가에게, 그리고 그곳을 활용하는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기회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서교, 금천, 신당, 연희, 문래, 성북, 관악, 홍은에 이어 구의, 신월 등에 위치한 각각의 창작공간들은 위탁 운영까지 포함하면 2019년 현재 19개소에 이른다. 각 공간들은 동시대의 창작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창작, 그리고 교류가 이어지는 공간으로 나아가려 한다.

금천예술공장의 '다빈치크리에이티브'는 예술을 기술과 산업의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결합·확장해나가는 플랫폼이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베이스캠프로, 지원뿐 아니라 전문가 양성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거리예술과 컨템포러리 서커스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공예예술을 특화 지원하는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예술지원뿐 아니라 전통시장과의 결합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며 공예작품이 예술상품으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유일한 장애예술가 전진기지로 자리 잡은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인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도 연계하며 포용하는 예술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예술을 통해 개인, 사회, 시대적 삶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이 가진 강력한 사회 참여적 힘의 좋은 사례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특화된 창작공간의 확장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규모 또한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의 향방이 이슈인 남산예술센터에서의 예술적 성과와 예술가들의 지지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한 힘이다.

예술교육 영역에서는 TA(Teaching Artist) 도입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예술과 결합해 그 가치가 배가되는 경험을 하게 했다. 그 결과 재단의 예술교육은 큰 반향을 일으켜 현재 예술계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은 예술가뿐 아니라 향유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적으로 연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예술가와 시민을 생각하다

15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은 자유로운 상상력에 진지한 실천의 반복을 더해 지금의 시간을 이루었다. 그간 좋은 피드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갑고 아팠던 그 모든 충고와 피드백은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창립 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우려도 있다. 문화예술이 삶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면서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스스로를 '상상력 선수'라고 부르곤 했다. 그것이 자기도취이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다짐이든, 예술이 갖는 특유의 활력과 유연함으로 공공조직이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확장해왔기에, 2020년 대하로 시대를 새롭게 여는 서울문화재단은 더 많이 관찰하고 소통하며 자율성에 근거한 새로운 상상력이 무수히 쏟아지길 기대하고 다짐한다.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에는 단지 서울문화재단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예술가,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금 되새긴다.

글 한지연_서울문화재단 제휴협력실장 사진 서울문화재단

예술가와 시민 사이

접점을 고민하다

서울문화재단 전 · 현직 대표이사의 만남

서울문화재단 창립 15주년을 맞아 유인촌, 안호상, 조선희, 주철환, 김종휘 등 전 · 현직 대표이사 5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2020년 대학로 시대를 맞이하는 서울문화재단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까지, 재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의 대화를 지면으로 옮긴다.

좌장 김종휘(2018. 9~현재)

패널 유인촌(2004. 3~2006. 9), 안호상(2007. 2~2011. 12),
조선희(2012. 3~2016. 8), 주철환(2016. 9~2018. 7)

일시 2월 12일(화)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

장소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서울문화재단이란?

김 종 휘 3월 15일은 재단 창립 15주년입니다. 학창시절에 비유하면 벌써 대학교 졸업 무렵입니다. 초등·중등·고등학교 과정의 재단을 먼저 겪으신 전 대표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꺼내주셨으면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할 정의도 있을 것이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해야 하는 정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촌 전 대표님부터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유인촌 처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에 서울문화재단이 제일 먼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는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서울문화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민간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게 목표였죠. 그런 전반적인 틀을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이후로 여러 대표님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당시엔 경기문화재단이 규모가 제일 크고 예산도 제일 많이 받는 문화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제는 연조(年條)가 쌓여 서울문화재단이 가장 활발하고 조직 규모 면에서도 가장 커졌고, 더 많은 역할을 하는 재단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재단을 정의한다고 표현하기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계속 지켜가고 공무원들과 확실하게 분리된, 좀 더 창의적인 조직으로 정의하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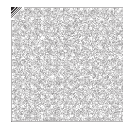
안 호 상 유인촌 대표님께서 재단의 초석을 잘 닦아두셨고 저는 그 걸 바탕으로 새로운 일들을 했습니다. 저는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다 왔지만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다른 예술기관들, 예를 들어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은 늘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죠. 안타까운 점은 런던,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런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직접 기관을 찾아가 문화적 혜택을 즐기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상당수의 시민들이 공공의 문화 서비스를 즐기지 못하고 있죠.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문제에 집중하여 여러 부분에서 문화적 서비스를 담당하며 대한민국 서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혜택



“동숭아트센터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틀고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서 키워지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리라 기대합니다. 때문에 15주년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유인촌

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면 시민이 직접 예술가가 되어보게끔 하는 서비스가 주었죠. 어쨌든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기관들이 담당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서울문화재단이 선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다 보니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 재단들이 우리 재단을 벤치마킹하게 되었죠.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 차근차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술기관과 다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적 서비스를 개발하고 모델이 되어서 선도적으로 해나갔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 선 희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연장선인데, 지금 서울문화재단의 위치라는 게 한국의 문화정책 전달 체계로 보면 광역시도 문화재단의 벤치마킹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서울문화재단에 왔는데, 그해 가을에 광역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가 생기며 문화재단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먼저 출발했지만 서울문화재단과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서울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재단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러



“대학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치, 새로운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앞으로 15년, 또 그 이상으로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5주년을 축하하며 힘차게 앞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호상



가지 서비스 모델들을 많이 갖고 있지요. 예술교육이나 생활문화사업을 비롯해서. 또 서울로 보자면 그동안 기초문화재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협력할지가 과제라고 봅니다. 서울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김종휘 대표님은 좋은 때 오신 것 같습니다. 박 시장님은 예전부터 공무원들에게 산하기관에 갑질을 하지 말고 자율성을 주라고 하셨지만 그게 잘 관철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선 되시고 나서 확실하게 그 기조가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저희들보다 훨씬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양날의 칼이라 생각해요. 기관이 자율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기관장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대표이사가 스스로 엄격한 자기 검열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것이지요.

안호상 공직이 무서운 자리가 됐어요.

조선희 그럼요. 그리고 전권을 위임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유인촌 지금 전권을 위임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김종휘 그런 조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조선희 제가 볼 때 확실히 저희 때와는 달라요.

안호상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일이네요.

김종휘 흐름상 현재는 민선 7기로 박원순 시정 10년을 완료하고 정리하는 때 같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와 재단의 관계를 보면 재단이 좀 더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서로 사전 협의와 공유를 잘 해나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재단 임직원의 생각도 궤를 같이 합니다. 15년 차를 맞은 재단이 지금까지 비유컨대 ‘구약’ 시대였다면 향후 ‘신약’ 시대를 열어야 하니, 주어진 일을 잘 한다는 자세를 넘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고 또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재단의 향후 3~4년이 중요한 때입니다.

주철환 저는 국어 교사 출신으로, 그게 저의 밑거름입니다. 제가 가르친 퇴계 이황의 시조 중에 ‘古人(고인)도 날 못보고 나도古人(고인) 못봐/古人(고인)을 못봐도 녀던 길 알파이니/ 녀던 길 알파 잇거든 아니 녀고 엇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조선시대 말이니까 현대어로 풀어보면 ‘옛사람도 나를 못보고 나도 옛사람 못보았지만 옛사람이 가던 길이 있으니 그 길 잘 따라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 대표님은 다섯 번째 대표시고,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은 각자의 전문성, 각자의 캐릭터,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던 것도 있고 아쉬웠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알고 난 뒤 유 대표님의 장점을 강화하고 조 대표님과 안 대표님 그리고 저의 장점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일지 대표의 임기 중 한 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대정신... 시장의 3기 등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 현 대표의 어깨가 무겁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으셨고 위임은 책임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점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문화, 재단입니다. 이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죠. 제가 대표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서울문화재단 구성원들의 즐거움, 그들의 자부심을 지켜주며 즐겁게 일하는 전문가들의 그룹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직원마다 각자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고요. 대표는 직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갈 때 전



전·현직 대표이사 5인이 대학로
동송아트센터에 모여 서울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체적인 구성원의 일부로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각자의 개성, 전문성, 스타일 같은 것들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학교 교실에서 공부 잘하는 몇 명에게 ‘너희들만 좋은 학교 가면 돼’라고 하기보다는 애는 그림을 잘 그리지, 애는 명상을 잘하지, 축구를 잘하지 이런 것들을 관찰과 대화를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들로부터 즐겁다는 얘기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 즐거움이 ‘난 편해서 좋다’는 게 아닙니다. ‘난 내 마음대로야. 대표가 나에게 위임했으니까. 이 돈을 마음대로 써야지’가 아닙니다. 그건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대표부터 말단 직원까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당위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서울에 사는 예술가들을 도와주고 서울시민들의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고취시키는 일입니다. 이걸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대표님은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하고 방패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론 병풍도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로부터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겁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됐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재직 당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울 때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규제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대표님께 이런 것을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일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은 코디네이터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김 종 휘 15년 차가 된 서울문화재단의 이후 전망과 이 무렵부터 일하게 된 저에게 전하는 당부가 두루 포함된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새겨들겠습니다만 그 당부에 일일이 답변드리기보다는 재단의 현재 상황과 고민을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계를 강타한 근래의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당사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말인즉 문화예술계에는 여전히 장르별, 분야별 수요와 요구가 존재하고 작동하지만, 이 울타리에 한정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내가 당사자라고 하는 주체의 각성 같은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 당사자의 목소리에 부응해 나가려는 재단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전환기를 겪으며 재단의 관점과 태도를 바꿔가는 출발선상입니다. 앞서 재단을 전문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우리

재단의 직원들에게 현장의 예술가, 지역활동가, 청년을 만날 때 재단의 직원은 누구에게 무엇으로 당사자인가 묻고 같이 공부하는 중입니다. 우리 재단 직원이 당사자로 만나지 않으면 재단이란 대변인이 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머물렀다. 서비스 제공하고 대변자 역할도 하되 그 선을 넘어 재단 직원은 직원대로 어떤 당사자가 될 것인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재단은 예술가, 지역, 청년의 현장 속에서 협치하고 혁신하는 균형 감각을 많이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재단 직원들이 합의하고 공감하는 조직의 정체성이, 구호를 넘어서 내면화된 ‘나는 누구다’가 생기고 그 힘으로 서울시와 현장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舊) 동숭아트센터 완공 이후 서울문화재단의 방향성

김 종 휘 동숭아트센터를 서울문화재단이 인수하면서 어떤 언론인은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 서울문화재단이 개관하면 연극은 너무 당연하고 이외에 다른 장르들, 특히 여기를 거점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의 장르가 대학로를 무대로 활동하고 재단과 왕래하는 일이 잦아질 것 같습니다. 대학로라는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상징과 서울문화재단이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문화재단이 견지해갈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20년 겨울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극장이 개관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성북에도 6개월 뒤쯤 역할이 연결되는 서울시 앵커가 생깁니다. 현재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한 정거장 사이로 대형 앵커 두 개가 생기는 꼴인데, 이러한 상황도 고려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 인 촌 (자연스럽게 뒤를 보며) 저게 당선작인가요?

김 종 휘 네. 뽕 뚫린 마당이 중정 개념으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설치하고 입구에서부터 빙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 인 촌 건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설계네요.

김 종 휘 일부는 증축도 있고요. 극장 구조 진단을 했는데 안전 부분

을 보강해야 해서 사실 이름은 리모델링이지만 거의 다 건드리는 데 공사입니다.

조선희 괜찮네요. 위에 저렇게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유인촌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건드릴 것 같으면 헐고 새로 짓는 게 나을 텐데요. 지금 저 정도까지 손대려면 신축 비용에 맞먹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오래된 걸 싹 헐고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아요?

조선희 안전진단이 있지 않았나요? 건물 구조가 튼튼한지, 리모델링이 나을지 신축이 나을지 이미 판단을 했겠죠.

유인촌 좀 전에 김종휘 대표님께서 성북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김종휘 연극이 중심인데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지역민의 요구 등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다목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유인촌 연극인들은 이곳(舊 동숭아트센터)을 더 많이 찾을 것 같네요.

김종휘 서울에 사는 예술인들의 주거 분포도를 살펴보니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이, 남쪽으로는 관악이 마지노선이더군요. 그곳에 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아니면 안양, 수원으로 넘어가는 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뉜 상황에서 어쨌든 북쪽에만 두 개의 앵커가 지어지는 것이죠. 성북동에 생기는 앵커를 서울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같이 운영할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조선희 서울연극협회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요?

김종휘 3월에 서울연극협회를 만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극인들과 토론하면서 서울시나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극장 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럼 더 행복해지는가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선희 공간이 생길 때마다 다 떠안으면 서울시와 재단도 부담이 될 겁니다. 예산 부담이나 조직 부담도 그렇지만 연극계의 중요한 시설들을 다 끌고 간다는 것은 모든 책임도 짊어지는 셈이니깐요. 연극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운영 원리를 말하고 운영을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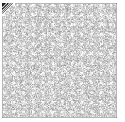
나가야 할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을 민간단체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역할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면서 공공의 역할도 하는가에 대해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상호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겠죠.

남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뒤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접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종휘 재단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아직 가부를 말하기는 어려운 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쪽(학교법인)이 현재 분위기에서 저희 외에 다른 곳에 임대를 주거나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공사할 그럴 형편은 아닌 듯합니다. 연극인과 시민이 만들어가는 공론과 여론에 따라 향배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희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연극인들 폐친이 많습니다. 올 1월부터 페이스북에 접속만 했다 하면 남산예술센터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신경 쓰이더군요. 바깥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구심이 이해가 가요. 남산예술센터는 재단의 다른 사업과는 분명 구분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안호상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남산예술센터를 공공극장으로서 어떤 위상과 존재감을 만들어왔습니까. 극장장이란 직제를 둔 것도 조직적으로,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등에서 독립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산예술센터는 연극계와 협업을 하는 공간이고, 재단의 다른 공간이나 사업 같은 결재라인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극장운영팀이 지역문화본부로 들어가고 조직도에 극장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실종됐더군요. 보면서 의아했는데, 아마 밖에서도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휘 잘 들었습니다. 이 이슈로 계속 연극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레(좌담 이틀 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또 가집니다. 이런 자리들을 통해 공공극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무엇보다 지속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 방안을 찾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020



“서울문화재단이 열다섯 살 사춘기에 접어들었네요. 질풍과 노도, 잘 견뎌낼 수 있겠죠? 재단이 그동안 해왔던 일, 크게 매개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예술, 순수예술의 매개 역할을 잘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문화재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이 어느새 15주년을 맞았네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조선희

년 겨울에 동숭아트센터와 극장이 재개관하고 2021년에는 성북동 앵커(창작연구지원시설(가칭))가 개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 도서관의 분관 앵커들도 개관할 예정인데 이런 대형 문화 인프라를 운영할 전문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또 시 예산은 계속 지원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진단과 검토가 뒤따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미 다가온 근미래 환경의 변화라면, 남산예술센터가 만들어온 10년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그 미래를 어찌해야 할 것인지는 당면 이슈입니다. 최근 재단의 조직 개편과 맞물려 남산예술센터의 독립성, 자율성 문제 제기로 시작된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남산예술센터를 포함해 공공극장의 문제가 앞으로 공연예술계의 생태계를 가늠할 큰 주제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단의 조직 개편에 담긴 행정적 취지나 디테일을 밖에서 다 알기는 어렵고 또 그래서 질문할 수 있겠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블랙리스트 당사자였기에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의 과거를 살펴봤는데 남산예술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작품이나 제작에 재단이 관여했던 바는 없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산예술센터의 독립성, 자율성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극장, 극장장, 예술권한, 행정권한, 시스템 등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보고 또 종합하는 다음 단계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현장의 진정성과 감수성 그리고 재단 조직의 행정적 개편 등이 서로 본뜻을 오해하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유인촌 남산은 연극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찾아오고 싶은 공간입니다. 의자를 기부하고 이름을 새기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지고 지워지고..., 그런데 오랜 기간 비워놓고 일반에게는 빌려주지 않던 공간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인다면 연극계에선 상당히 반발할 것입니다.

김종휘 남산예술센터는 공공 제작극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입니다. 시민 관객의 참여와 호응이 더 많아져야겠지만, 남산예술센터의 출발과 사명은 해당 장소의 지역 주민 참여나 생활문화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공간과는 다릅니다.

유인촌 다시 대학로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꼭 그렇지 않다면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있는 걸 가지고 고치려니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 경제적인 논리를 안 따질 수 없으니까 따져서 해야겠죠. 재단에서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연장, 갤러리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연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미디어 관련 스튜디오도 있어야 하고 세미나실도 있어야 하고, 그런 걸 다 따지면 여기도 현재 상태에서 고쳐서 다른 것을 들여와 쓰기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래도 블랙박스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가변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사실 무대가 공간이 부족해 핸디캡이 많은 극장인데 차라리 객석을 대폭 줄이고 무대 공간을 더 넓혀서 남산처럼 아레나 스테이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블랙박스로 한다면 맞춰서 할 수 있겠지만 선택의 폭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재단의 입장이 분명하면 좋겠네요. 뉴욕시가 운영하는 퍼블릭 시어터(The Public Theater)¹라는 극장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가보았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엔 건물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연장이 대여섯 개가 있더군요. 작은 공간부터 1,000명이 들어가는 공간까지 크기별로 있죠. 예전에 조셉 파프(1921~1991)²가 운영했다고 합니다. 뉴욕시가 임대해 준 것인데 1년에 1달러로 아주 싸게 줬다고 하니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이 극장을 살리라는 명분으로 극장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재단이 이처럼 상징적으로 민간에게 역할을 준다면, 물론 굉장히 싼 임대료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들(운영하는 자)의 책임이지만,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셉 파프는 퍼블릭 시어터에서 상업적인 공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공연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의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보여주었죠. 그런 곳은 시가 만들어놓고 철저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형태죠. 브로드웨이의 수많은 상업적 공간들은 그 대로 가면서 거기는 그 공간대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적절히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명분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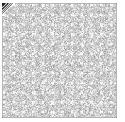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15년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할 것, 예술현장, 지역현장, 청년현장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재단의 다음 단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숙의하고 다듬고 정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휘

않을까 싶어요.

안 호 상 제가 처음 블랙박스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동숭아트센터는 프로시니엄(액자형 공연장)³ 극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옆에 무대도 없고 백스테이지가 협소합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극장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는 1,000석 규모의 극장부터 다양한 극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 시대에 맞는 최적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싶었죠. 그러한 방편으로 생각한 것이 블랙박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근 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탈장르화한 새로운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그런 점을 고려해 열린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또 아무래도 프로시니엄 극장을 쓰는 세대들은 제작비가 어느 정도 마련된 기성세대 예술가 위주가 될 테니 젊은 세대, 신진예술가들을 위해선 블랙박스가 나올 것 같았어요. 우리가 대학로 시대를 가져가면서 지향해야 하



는 정신이 있다면 연극이라는 장르만은 아닐 것입니다. 보다 새로운 세대, 새로운 예술가, 새로운 예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극 장르만이 아닌 새로운 젊은 예술가를 타깃으로 하는, 그들에게 집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예술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에 기존의 전통적인 공연, 훈련된 방식, 그것만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만들면 좋겠다고 한 것이죠.

유인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이 좋은 모델이니까 거기 가서 보고 참고하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안호상 그것 역시 부족합니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보다 더 나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블랙박스를 제안한 겁니다. 처음 만들 때는 명동극장도 있고 대학로 연극을 하는 세대가 있으니 차이점을 둔다면 다른 연극을 하자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면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전문화되니까 민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연극을 제외한 오페라, 클래식 음악 같은 타 장르의 경우 민간 부분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민간의 연극도 과거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졌죠. 상대적으로 공공예술단체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원뿐만 아니라 관객 기반과 인프라도 좋아지고 있고요. 우수한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그런 자원들을 공급받아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간단체는 재정이 열악하고 관객 기반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은 예술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니 젊은 예술가들, 지금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예술가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재단의 방향성, 정신을 잘 표방하는 게 맞을 겁니다. 대학로 시대 역시 그걸 준비하는 새로

운 전기로 생각해 많은 분들과 잘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환 저는 건물 활용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정해야 합니다. 골고루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골고루 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5,000만 원이 필요한 곳이 이러한 이유로 1,000만 원만 지원받는다면, 재단은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욕을 먹게 되지 않을까요.

유인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철환 욕을 먹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영화를 지원 안 하나요? 영화는 이미 상업적이고 대중적이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연극은 꼭 필요하지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연극 중에서도 진짜 시민에게 영양소가 될 수 있고 예술적 의미가 있는 작품들은 우리가 지원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보태 다양한 극본과 다양한 장르의 연극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목이 중요한 거고요.

유인촌 김종휘 대표가 노리단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잘 알 거예요.

안호상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하는 게 좋죠. 일관되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김종휘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서울문화재단 15년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해야 할 것, 예술현장, 지역현장, 청년현장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재단의 다음 단계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숙의하고 다듬고 정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올 한 해 우리 재단이 경험하게 될 시간과 공간, 무엇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 이규승·전주호·배슬기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조현우

1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의 비영리 공연 단체. 원래 공공도서관인 아스톨(Astor)이었으나 개조하여 조셉 파프가 운영하였다. 대표 공연으로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Shakespeare in the Park)가 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e_Public_Theater

2 미국의 연극 프로듀서 겸 감독. 퍼블릭 시어터를 설립하였고 뉴욕 셰익스피어 축제의 창시자이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Joseph_Papp

3 객석에서 볼 때 원형이나 반원형으로 보이는 무대. 액자처럼 보이기도 해 액자무대(額子舞臺)라고도 한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1%9C%EC%8B%9C%EB%8B%88%EC%97%84>

Art is Life. Life is Art.
From Nakamura Keith Haring Collection



Keith Haring artwork © Keith Haring Foundation

키스 해링전

2018.11.24 - 2019.3.17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 최



지엔씨미디어
Global Network of Culture

후 원



주한미국대사관

VKC VISIT KOREA
COMMITTEE

협 찬



신영증권



신한카드

THE HYUNDAI



JCDecaux

NOVOTEL
HOTELS & RESIDENCES
엠베어더
SEOUL DONGDAEMUN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초청공연

우리동네 사커쇼

· 드로잉서커스&마술 ·

특별초청 공연



크로키키브라더스



마술사 주니

19. 3. 9. (토)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11:00~14:00

체험 스크래치 도화지 그리기
*선착순 50명 무료 체험

15:00~16:00

공연 드로잉서커스 & 마술
*선착순 100명 무료 관람

삼각산시민청은 우이신설경전철
솔밭공원역과 연결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두 번째 시민소통공간입니다.

솔밭공원역 1번 출구

1동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92

www.sg.seoulcitizenshall.kr

문의 02-900-4300

솔밭공원역 2번 출구

2동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595

[sgsimin](https://www.instagram.com/sgsimin)

무대는 나의 힘

배우 양희경

30여 년간 무대와 TV를 넘나들며 활약해온 배우 양희경이 연극 〈자기 앞의 생〉으로 3월 23일까지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선다. 〈자기 앞의 생〉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프랑스 공쿠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로맹 가리(1914~1980)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차별과 폭력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해 삶의 무게를 담담히 그려낸 작품이다. 양희경은 비슷한 연령대의 주인공 로자 역을 맡아 자신의 대표작 〈늙은 창녀의 노래〉의 한물간 작부처럼, 모성애와 같은 따뜻함으로 다시 한 번 외로운 이들을 보듬는다.



한계 없는 모성애를 그리다

연극 〈늙은 창녀의 노래〉 속 목포의 유곽 거리 ‘히빠리 골목’에서 몸을 파는, 걸쭉한 남도 사투리를 쏟아내는 중년의 창녀가 나이 들면 연극 〈자기 앞의 생〉 속 파리 빈민가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창녀 출신 유대인 보모 할머니 로자가 돼 있지 않을까. 꾸준히 무대 위에 오르며 존재감으로 캐릭터에 서사와 입체성을 불어넣는 배우는 얼마나 소중한가. 양희경은 1990년대 〈늙은 창녀의 노래〉로 연극계를 풍미했고, 2019년 현재 〈자기 앞의 생〉에 출연하며 한국 여배우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시대, 나라 등 배경이 달라 도 인물들을 하나로 꿰는 비법을 안다. 〈늙은 창녀의 노래〉의 창녀는 스무 살 무렵에 창녀촌에 속아 들어와 20여 년을 보냈지만 회환에 잠기기보다 자신을 찾아오는 외로운 이들을 보듬는다. 로자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랍계 소년 모모를 비롯해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키운다. 그는 갓은 고초를 겪었지만 외로운 이들을 품고 또 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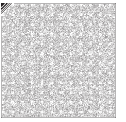
로자는 3월 23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국립극단 2019 시즌 첫 작품 〈자기 앞의 생〉의 주인공이다. 개막을 나흘 앞두고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양희경은 로자 할머니 같은 인자한 얼굴로 말했다. “1995년 〈늙은 창녀의 노래〉를 초연했을 때 캐릭터보다 한 살 위였어요. 이번에는 로자보다 제가 두 살 아래예요. 두 캐릭터를 모두 비슷한 나이에 연기하는 거죠. 모두 다른 인물이고, 각각 대한민국과 프랑스 파리의 이야기지만 비슷한 점은 있어요. 사람들의 삶이 다 엇비슷하다는 거죠.”

〈자기 앞의 생〉은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프랑스 공쿠르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계 프랑스 작가 로맹 가리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로맹 가리는 원칙적으로 2회 수상이 금지된 공쿠르상을 유일하게 2회 수상한 작가다. 1956년 〈하늘의 뿌리〉로 공쿠르상을 받았던 가리는 1975년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낸 〈자기 앞의 생〉으로 다시 한 번 공쿠르상을 받았다. 하지만 발표하는 작품마다 평론가들의 비판을 받아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 심지어 생전에는 그 자신인 에밀 아자르와도 비교됐으며, “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결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사후에 그가 아자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는 편견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편지를 날렸다.

연극 〈자기 앞의 생〉은 프랑스 작가 겸 배우 자비에 제이아르가 소설을 각색해 2007년 초연했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연극상인 물리에르에서 최고작품상, 최고각색상, 최우수연기상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국내 관객에게는 국립극단이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한다. 예전에 〈자기 앞의 생〉을 읽었다는 양희경은 지난해 9월 처음 캐스팅 제안을 받은 뒤 “한 달 넘도록 생각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제가 과연 로자 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죠.” 로자는 삶의 고초를 온몸으로 겪었다. 폴란드 출신의 이민자인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다. 창녀 생활을 했고, 파리 빈민가에 산다. 보통의 유대인이란면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무슬림 아이 모모와 같이 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외로운 모모의 삶을 지탱해준다. 혈육이 아닐뿐더러 인종, 종교, 세대 등 모든 사회적 기준이 다른 모모를 품는다. 원작 소설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해 다양한 사연이 얹히지만 연극에는 로자와 모모를 포함해 이웃집 의사 카츠, 모모의 친아버지인 유세프 카디르 등 네 명의 캐릭터만 나온다. “로맹 가리의 팬이 많잖아요. 희곡도 나뭇의 색깔과 매력이 있지만 소설과 비교당할 부분이 많죠. 이 희곡으로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됐어요. 결국 로자 역과 희곡에 설득당



1,3 연극 〈자기 앞의 생〉 연습 모습.
2 연극 〈자기 앞의 생〉 홍보 이미지.



해 출연하게 됐지요. 로자와 나이대가 비슷하니, 동년배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뽑아내려고 해요.”

사실 양희경의 모성에는 한계가 없다. TV 드라마에서 이모나 고모 역할을 주로 맡았지만 무대에서는 다르다. 연극 〈민자씨의 황금시대〉에서는 철없는 엄마지만 삶의 희로애락과 모성애를 아는 민자를 연기했다. 1990년대 인기를 누린 작품으로 양희경의 대표작으로 통하는 모노극 〈늙은 창녀의 노래〉의 한물간 작부는 모성애가 느껴지는 따뜻함으로 외로운 이들을 품었다. 언니인 가수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뮤직비디오에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절절한 모성애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번 〈자기 앞의 생〉에서는 그동안의 모성애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준다.

배우는 공감하는 사람

〈자기 앞의 생〉은 극단 사개탐사의 박혜선 대표가 연출을 맡아 힘을 싣고 있다. 캐나다에서 연극을 공부한 뒤 2007년까지 극단 전망의 연출부로 활동한 박 연출은 2008년 극단 사개탐사를 창단, 남성 중심의 서사가 지배적인 연극계에 꾸준하게 균열을 내왔다. 〈억울한 여자〉, 〈아내들의 외출〉, 〈엄마의 이력서〉, 〈신의 아그네스〉 등 여성 중심의 서사가 그 예다. 하지만 단지 여성 서사를 꺼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자기 앞의 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양희경 역시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강조한 단어는 ‘식구’(食口)다. 말 그대로 ‘집 안에서 같이 살면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이다. 양희경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같이 나누고 살면 그것이 가족 아니겠어요”라고 한다. 그는 앞서 다른 작품에서도 이상적인 ‘대안 가족’ 형태를 봤다. 낯선 두 할머니가 개, 고양이, 닭 등과 함께 혈연관계가 아닌데도 식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다.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 삽입곡을 편곡해 만든 노래 〈넌 아직 예뻐〉를 양희은과 함께 부르기도 했다. 〈자기 앞의 생〉의 로자와 모모도 일종의 다른 대안 가족이다. “유대인과 무슬림은 엄청나게 대립하잖아요. 로자와 모모는 종교를 비롯해 인

중, 세대 등 모든 것을 초월해요. 배경을 떠나 온전히 인간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죠. 그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로처럼 깊고 넓은 사랑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처음에는 연극을 많이 했는데 결가지를 다 쳐내니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일상에서 양희경의 사랑은 ‘밥의 힘’을 기반으로 삼는다. 최근 종영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 <볼빨간 당신>에서 보여준 ‘집밥의 힘’이 그 예다. 아흔 살 모친을 위해 보리야채샐러드와 라타투이 등 건강식을 손수 만들어 주목받은 그는 연극, 방송, 라디오 등을 오간 전성기 때도 두 아들을 위해 매일 집밥을 했다. “아들들을 방목하더라도 눈앞에 뒤야 했죠.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하니, 밥이라도 제대로 해 먹이자는 생각이 컸어요. 언제 돌아와도 집에는 ‘맛있는 밥’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맛있는 밥과 반찬을 만들어놓았죠. 그리고 아아들을 믿었어요. 무슨 일을 겪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요. 호호.” 큰아들 한원균 씨는 무대 조명 디자인을 하며, 작은아들 한승현 씨는 배우로 활동하면서 연기를 지도하고 있다. 양희경은 ‘두리반’(식구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크고 둥근 소반) 앞에서 밥 먹는 풍경이 없어진 것을 아쉬워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정이 있어요. 그 먹을거리를 만드는 엄마는 참 대단하죠.” 이처럼 엄마의 위대함을 증명한 양희경은 많은 엄마들이 스스로 ‘지금까지 한 일이 하나도 없네. 삶을 잘못 살지 않았나’라고 자책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아니, 왜 한 게 없어요”라며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음정을 높여 말했다. “애들 결혼할 때까지 잘 키우고,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중 하나 아니겠어요. 본인들의 일을 너무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남자들도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물론 가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남편의 바깥 생활 노고를 알기 힘들 수도 있죠. 서로의 고충을 알기 위해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역할 바꾸기를 한 번 시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서로 ‘당신이 한 일이 뭔데?’라며 역정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파도가 바다의 일인 것처럼 연기가 배우의 일인데, 연기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 공감하는 능력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배우는 일상에서도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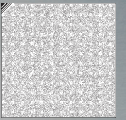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럽다.

연극 무대는 ‘연기의 집밥’을 먹는 곳

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인 양희경은 1981년 연극 <자 1122년>으로 데뷔했다. 육아로 잠시 쉬다가 1985년 연극 <한씨연대기>를 통해 연기 활동을 재개했다. <늙은 창녀의 노래> 같은 연극, 양희경과 함께 출연한 <어디만큼 왔니>를 비롯해 <넌센스> 등 뮤지컬뿐 아니라 <목욕탕집 남자들>, <하얀거탑>, <누나>, <넝쿨째 굴러온 당신>, <달자의 봄>, <이별이 떠났다> 등 다수의 드라마에도 출연했다. 특히 명작으로 평가받는 드라마 <하얀거탑>에서는 부원장 우용길의 아내이자 ‘의사부인회’ 회장인 홍성희 역을 맡아 비중은 작지만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다양한 TV 출연작 중에서도 발군은 1990년대 초에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영화 <미저리>의 미친 간호사 애니 월크스(케시 베이츠)를 패러디한 광기 어린 연기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양희경은 본인은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일은 못한다고 털어놓았다. “요리도 요리 교실에서는 배우기 힘들더라고요”라며 깔깔댔다. “창의적인 직업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천직이죠. 요리 비법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요리를 하다 보면 손에 배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듯 연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캐릭터를 해석해내는 비법은 대본을 본 뒤 처음 그에게 찾아오는 느낌대로 가는 것이다. 드라마 <달자의 봄>에서는 주인공의 표독스러운 직장 상사 ‘강 팀장’을 연기했는데 작가가 본인이 그렸던 캐릭터 그대로라며 찬사를 보냈다. 작가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 인물을 상상하며 강 팀장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양희경은 당시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상황이었다. 거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일도 해야 하는 ‘워킹맘’ 강 팀장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새겨 넣었다. 양희경은 “감을 믿어야 해요”라며 웃었다.

이렇게 TV 드라마에서 각광받는 등 바쁜 스케줄을 보내면서도 양희경은 고향과 같은 연극 무대를 꾸준히 찾았다. 장민호(1924~2012), 백성희(1925~2016), 윤소정(1944~2017) 등 선배 연극인들의 빈소와 영결식에도 빠지지 않았다. “백성희, 윤소정 같은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박정자, 손숙 선배님처럼 저 역시 오래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분들 덕분에 연극계가 지켜지고 있죠.” 하지만 그가 먹고 힘을 내는 ‘연기의 집밥’과도 같은 연극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예전과 환경이 같아요. 받는 돈도 같고, 열악한 환경도 같죠. 사회는 발전했다고 하니 같은 게 아니라 더 열악해진 거죠. 공연 장르 중 뮤지컬 팬은 그나마 있어요. 그런데 연극 팬들은 차츰 더 줄고 있죠. 그러다 보니 배우들은 방 한 칸도 제대로 못 구해요. 집을 산다고요?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와 같죠.” 노장 배우와 신인들을 잇는 허리 배우들은 대가 끊긴 지 오래다. 연극판에서 기반을 다진 뒤 영화와 드라마로 옮긴 배우들이 연극계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극계의 기반이 더 탄탄해지고 지원환경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 “영화와 TV로 활동 무대를 옮기면 연극 활동 병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이 균형 있게 잘 융화됐으면 해요.”

양희경은 1980~1990년대 연극계의 전성기를 온몸으로 겪었다. 〈한씨연대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뒤 이 작품을 올린 연우무

대는 이후 〈칠수와 만수〉 등 흥행작을 연달아 내며 여러 개의 극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양희경은 〈늙은 창녀의 노래〉 출연 당시 드라마, 영화도 촬영했으며 라디오 진행과 TV 출연도 병행했다. 그는 연극의 부흥기를 다시 꿈꾸며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도 1년에 한 편씩 무대에 꼭 올랐다. 하지만 몇 년 새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매일 라이브로 공연해야 하는 연극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결국 3년간 연극을 쉬었다. 그러다 지난해 영국 추리작가 아가사 크리스티(1890~1976)의 원작이 바탕인 〈쥐뿔〉으로 연극에 복귀했다. 그가 맡은 보일은 2막 중간에 사라지는 역이라 부담이 덜했기 때문이다. 이번 로자 역은 국립극단 시즌단원인 이수미와 나뉘 말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 있어야 해 부담이 제법 크다. 그는 13회 무대에 오른다. “아직도 두렵고 무서워요.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연극이 좋으니까, 로자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잘해내야죠.” 카랑카랑한 특유의 웃음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글 이재훈 뉴시스 기자 사진 손흥주 사진 제공 국립극단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장르에 걸쳐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작가의 방'에서는 지원작가들 가운데 눈에 띄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를 선정해 소개합니다.

초연 작품의 캐릭터 변화



윤석원
배우

윤석원은 대학에서 연출을 공부했으며, 한때 회사를 다니다 우연한 기회에 공연계에 들어왔다. 그가 참여한 뮤지컬로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여신님이 보고 계셔〉, 〈명동 로망스〉, 〈홀연했던 사나이〉, 〈러브레터〉 등이 있으며, 연극으로는 〈더 로스트〉, 〈한눈두눈 뺑구타고〉, 〈물고기 남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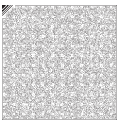
“아기를 낳고 키우는 육아와 비슷해요.”

세 살 쌍둥이의 아버지이자 뮤지컬 배우인 윤석원은 2월 10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된 창작 뮤지컬 〈뱀파이어 아더〉(서희원 작, 김동연 연출)에 출연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뱀파이어 아더〉는 라이선스 작품이 아니라 신진 작가의 이야기를 무대 작품으로까지 올리는 충무아트센터 ‘블랙 앤 블루 시즌 4’의 결과물이다.

총 제작 기간만 1년 6개월, 등단한 적 없는 신진 작가인 서희원의 대본은 1시간의 시사회와 8개월의 완성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최고의 뮤지컬 전용극장에 올랐다. 윤석원은 이 창작 과정을 함께했다. 시사회 때도 열연을 선보였다. “두 딸을 키우는 시기와 비슷해서 그럴까요? 극이 점차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배우로 데뷔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다. “물류회사에 다닐 때, 우연한 기회에 〈밀바닥에서〉라는 공연을 보고 무작정 오디션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인데, 언젠가 연출가가 같이해보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는 이후 배우로 활동하면서 대학로의 작은 공연도 메이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실제로 전작들을 살펴보면 〈러브레터〉, 〈명동 로망스〉 등 이제 갓 시작하는 작품들이 많다. “한 작품이 무에서 유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맨바닥에서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가 〈뱀파이어 아더〉에서 맡은 ‘존’은 비밀을 간직한 뱀파이어 ‘아더’를 위해 헌신하는 집사이다. 지난해 3월 처음 무대에 올랐던 시사회 때와는 역의 이미지가 조금 달라졌다면, 이것도 초연 작품의 매력이란다. 한 편의 극은 관심과 애정을 먹고 조금씩 자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연과 삼연을 거치면서 조금 살이 붙으면 악역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역할로 바뀌지 않을까요?”



분단, 게임으로 알아보기



임애련 ‘놀공발전소’ 공동 대표

임애련은 한양대 교육대학원
교육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Being
Faust〉(2014~2019), 〈도쿄 국제
연극제〉(2015), 〈타이포잔치〉(2015),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2015),
〈수남장마당〉(2018), 〈월페커즈
베를린〉(2019), 〈월페커즈 한국〉(2019)
등이 있다.

“두 나라의 통일과 분단의 역사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문화예술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놀공발전소’의 임애련 공동 대표는 2월 9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열린 〈월페커즈〉(wallpeckers) 전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장벽을 부수는 사람들’로 해석되는 전시명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망치와 곡괭이로 실제 장벽을 부순 사람들을 뜻한다.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월페커즈〉는 전시 준비에만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임 대표는 “양국은 비무장지대(DMZ)와 장벽을 사이에 두고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두 나라가 머지않아 분단의 역사는 물론 통일의 역사도 공유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라며 취지를 밝혔다.

임 대표는 “독일에선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면서 이제는 분단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60년이 넘게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은 낯선 주제가 됐다”며, 최근 몇 개월간 보여준 수많은 변화에 주목해보면, 이제 통일을 이루는 과정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는 개인의 이야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놀공발전소’가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게임’을 내세웠다. “게임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6개의 주제로 총 54개의 한반도와 독일의 분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적었다. 관람객에게는 30분 이내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기사를 작성하게 했다.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정보를 찾아가며 기사를 써야 했으니 분단을 바라보는 ‘역사적 관계 맺기’가 조금은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세 개의 시공간 넘나들기



안애순
현대무용가

안애순은 프랑스 바뇰레 국제안무대회에 참가했으며, 독일 뒤셀도르프, 싱가포르 아츠 페스티벌 등에 초청되어 외국에서도 호평받았다. 1985년에 창단한 안애순무용단은 명쾌하고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국제무대에서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공연을 보는 관객을 당황하게 만들 겁니다.”

현대무용가 안애순은 2월 16~1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 〈평행교차〉를 앞두고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평행과 교차’라는 상반된 개념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 안무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작품”이라 설명한다. 그는 “이때 무용수들이 몸의 움직임을 반복하고 변주한다”면서 “관객은 세 개의 시공간에 따라 무용수들의 같은 동작에 대해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전작을 살펴보면 유독 시공간을 넘나드는 작품이 많다. 이번 공연에서는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도 읽혔다. 그는 “현재의 몸은 사회가 규정해놓은 패턴과 틀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른들에게 마음껏 춤을 춰 보라’고 했는데, 아이처럼 자유롭게 추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은 사회에 길든 패턴대로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것은 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내면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본다. 안 안무가는 이런 이유에서 “현재의 몸이 갇힌 틀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시간성’에 대한 이해는 그가 생각하는 현대무용의 가치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 “현대무용은 어렵다”는 의견에 “무용수의 동작에 어떤 메시지를 의도했는지 묻지 말라”고 답한다.

“무의식적으로 추는 우연한 동작까지 관객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자신의 감정대로 이해하는 것이, 틀에서 벗어난 현재의 몸을 기억하는 것이 현대무용입니다.”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2019
3.15 금
|
3.17 일

평일 8PM
주말 3PM

LG 아트센터

예술감독
김상덕

예매 및 문의
국립극장
02-2280-4114
LG아트센터
02-2005-0114
인터파크
1544-1555

SHIGANÉ NAÏ

시간의 나이

조세몽탈보



국립무용단



국립극장

레퍼토리시즌

2018-2019

기술과 결합한 공연예술의 미래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

일시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 블루스퀘어 카오스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한양대 산학협력단

발제 Peter Flaherty(CalArts 연극대학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학과장)

고충길(영화감독, 컴퍼니 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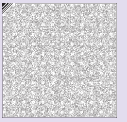
진행 양정웅(연출가, 서울예대 교수)

토론 김윤성(㈜포스트미디어 연구원, 한양대 겸임교수)

오필영(무대 디자이너)

과학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상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연예술 역시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을 확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술과 융합된 공연예술 창작 저변을 확장하고 기존 공연예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공연 창작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국내외 기술 융복합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연예술의 미래를 전망하고 선정된 단체의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컨퍼런스와 성과발표회 '4IR Performing Arts Conference & Stage'를 개최했다. 기술 융합형 공연예술의 동향과 발전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공연예술의 미래에 대해 묻고 답한 컨퍼런스를 소개한다.





발제 1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공연예술

Peter Flaherty(CalArts 연극대학 퍼포먼스 인터랙티브 미디어 학과장)

인터랙티브(interactive) 미디어의 핵심은 현장성(liveness)이다. 미디어로 제대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참여(participation)가 필수적이다. 공연예술, 특히 연극은 상호작용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기술, 전문 인력, 배우, 작가, 디자이너, 스토리텔러 등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인터랙티브는 ‘우리들 사이에 무언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상태를 전달하는 매체가 인터랙티브 미디어다.

최근의 관심사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다. 이를 섞는 시도를 통칭한 것이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이다. 지금 사용하는 기기들은 가까운 미래에 안경이나 렌즈 형태로 각막에 부착될 것이다. XR 기술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눈을 통해 현실을 증강시키거나 가상현실로 만들 때, 시신경과 연결된 도마뱀뇌가 작동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실제 세계,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세계의 조화이다. 북극의 가상현실 장면을 본 화상 환자들의 통증이 완화된 사례를 통해 가상현실을 보는 눈이 약물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적인 공연에서는 갈수록 예술가와 기술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빌더스 어소시에이션’과 2006년 제작한 〈Super Vision〉에서는 배우들의 앞뒤에 스크린을 설치했다. 배우들이 공연 중에 카메라를 조작하며 기술자 역할을 한 결과 라이브 영상과 녹화된 영상이 무대 위에서 조화를 이뤘다. 지금은 참여의 시대이다. 능동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하고 공유하고 선택하기를 원한다. 순서대로 진행되는 익숙한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 어떻게 관객이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XR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에서는 참여가 핵심이다. 매체는 각각의 참여자가 독특한 방식으로 이야기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작가로서의 접근법은 스토리텔링의 일방향성을 없앤 것이다. 관객들의 선택에 반응하고 이야기가 바뀐다.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는 수직과 수평으로 동시에 흐르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연결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출현과 표현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XR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없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젊은 층에게 이미 친숙하다. 〈The Dial〉에서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프로젝션 매핑을 결합했다.

사람들은 큐브 안에서 집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디자인이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어떻게 이야기에 개입해야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미래 세대는 디지털 체험을 점점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다. 햅틱(haptic) 기술이 좋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감정이입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런 이슈를 파고들었다. 〈The Surrogate〉는 360° 비디오로 탐험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관람자는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여주인공의 의식에 빠져든다. 복도를 따라 방 안에 들어가고 직접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야기나 게임에서는 참여자가 가상공간에서 움직이기를 요구한다. 움직이면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임이 중요하다. XR을 활용하는 예술가는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XR 그 이상으로 나아가 보다 정교한 이야기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은 초기 단계로 더 큰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

공연예술에 XR의 핵심 원리인 현장성, 참여, 구현(embodiment)이 갖춰지면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가 나올 것이다. 인간은 윤리적으로 만들고 이용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생명이 없다고 여기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상세계의 힘은 너무 강해서 인류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 디지털 몰입은 위험한 요소도 잠재되어 있다.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존재한다. XR은 단지 우리가 만든 툴이다. 모든 플랫폼에서 이 툴을 더 잘 이해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

발제 2 공연예술의 디지털 제작과 유통

고충길(영화감독, 컴퍼니 슝 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 중 공연예술과 관련해 두 가지에 주목했다. 첫 번째는 가상현실을 통해 무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디지털 기기로 관객들에게 전달할지이다. 두 번째는 ‘연결’이다. 전 세계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VR과 초연결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고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있다. 가상현실의 시대에는 문화의 형태와 예술언어,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 상상과 추리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의 시대에서 0과 1 사이에 수많은 언어를 함축한 이미지의 시대, 감각의 시대로 왔다. 인간은 예술작품을 보면 본능적으로 만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VR 기술은 이 감각을 극대화하고 예술을 만져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객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개입하기를 원한다.

공연에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살펴보자. 2014년 12월 공연된 연극 〈혜경궁 홍씨〉를 영상으로 제작했다. 사전 제작 기간에 10주 동안 연습실에서 같이 지내면서 연출자의 의도를 파악했다. 촬영은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영화처럼 한 장면씩 나눠서 했다. 관객의 관점에서 앵글을 잡기 위해 배우와 배우 사이에 카메라를 놓았다.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영상 작가들은 기술보다는 기획에 초점을 맞춘다. 예술가와 공연 관련 공학도는 융합되기 어렵다. 공학도와 같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학도들이 예술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작년에는 뮤지컬 〈햄릿〉 중 두 개의 넘버를 VR로 촬영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직적이었던 관객과 무대의 관계가 수평적이 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촬영을 위해 무대를 360°로 재배치하고 연출자와 상의해 배우의 동선을 변경했다. 관객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자리에서 공연을 보고 싶어 한다. VR 촬영을 하면 정해진 프레임을 강요받지 않고 무대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관객이 주도적으로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 이제는 180°의 R석이 360°의 VR석으로 대체될 것이다. 다음 작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VR 뮤지컬 영화 〈안나, 마리〉를 제작해 곧 개봉한다. 스테레오스코픽 3D, 이머시브 오디오 등을 사용하고 다면적인 서사 구조를 적용했다.

공연의 영상화를 위해서는 작품 선정과 극단, 극장, 제작사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작품에 대한 이해와 연출가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공연의 저작권과 관객의 초상권도 고려해야 하고 실황녹화인지 재촬영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제작비가 안정적으로 수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완성작에 대한 극단과 제작사 간의 수익 분배도 중요하다. 산업적으로는 극단, 극장, 제작사, 유통사, 지원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공연의 영상화는 공연예술을 확장하고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아카이빙하는 역할을 한다.

기조발제 후에는 양정웅 연출가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패널로 참여한 김윤성 연구원은 “〈Super Vision〉 영상을 보면서 공

연에 나온 비디오의 성격을 논한 적이 있는데 직접 만든 분의 생각을 듣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연 사례와 접근법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한 명의 패널인 오펜영 디자이너는 “전통적인 공연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공연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항상 있었다. 영상이 공연의 형식까지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느낀 점을 묻자 오펜영 디자이너는 “공연 자체가 이야기 전달이 목적이고, 무대 디자인도 그렇다. VR과 같은 기술은 이전에는 인간적이기보다는 기계적인 냄새가 많이 났다. 단지 효과를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고 인간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피터 교수는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고 연결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 내가 연극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스토리, 캐릭터, 인간의 감정이 한 공간에 모여 있고 참여자로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성 연구원은 “전에는 영화연출을 했고 지금은 VR 콘텐츠를 만드는 연구자이다. 오랜 시간 2D 필름작업을 하다 디지털로 넘어왔다. 영화계에서는 ‘영화는 어디에 있는가’를 논하고 있다. 영화는 단순히 움직이는 이미지였으나 지금은 〈The Surrogate〉처럼 기존의 영상 문법에 내비게이션 형식이 더해졌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로만 정의하기 힘들어졌다. 경계가 흐려지고 매체 간의 혼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공연예술도 ‘공연예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고충길 대표는 “영화의 언어와 공연의 언어는 다르다. 관객이 어떤 형태로 개입하고 상호작용하는지의 문제이다. 언어와 표현 형식이 달라져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것은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이다. 앞으로도 표현 형식을 개발하고 여러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양정웅 연출가는 “공연예술과 첨단 기술의 의미 있는 결합, 융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예술가나 관객은 이 결합을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느낀다”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느끼고 대중화되기 위한 방법을 물었다. 피터 교수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야기에 직접 관여하고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연극이 XR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Peter Flaherty, 고충길, 김윤성, 양정웅, 오필영(왼쪽부터).

다음은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차례였다. 융합기술을 활용하는 공연을 연습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피터 교수는 “미디어 작업의 경우 스튜디오에 프로क्टर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실험을 계속한다. 콘텐츠를 만들고 시도하면서 새롭고 특별한 것을 찾아 나간다. 무대에 아이디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견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변하고 점차 작동한다. VR은 더 복잡하다. 미리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방 안에 카메라를 두고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다. 화면을 보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장면을 선택해 스튜디오에 돌아가서 각각의 이미지를 결합한다”며 복잡한 과정을 소개했다.

컨퍼런스를 마무리하며 오필영 디자이너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공연과 앞으로 달라질 방향,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아마 모든 창작자들의 고민일 것이다. 기술은 예술을 표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김윤성 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이 창작 과정에 들어오면서 결과물이 초라해지거나 원래 생각한 이미지와 달라지는 현상을 겪는다. 공연 예술에 기술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낯섦의 정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창작자들은 고민하고 있다”면서 창작자로서의 의견을 피력했다. “연극은 그 자체로 모사가 아닌 기호의 예술이다.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면서 많은 창작자들이 기호로 상상하던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

면서 애초에 공연이 지닌 축제와 제의적인 성격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좀 더 다성적인 목소리를 내고 자기 것을 표현하는 언어로 이용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슬기롭게 작업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발제를 한 피터 교수는 “왜 기술을 예술에 이용하는가”라는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불타는 장작으로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린 것이 기술과 예술의 첫걸음이다. 전통 예술의 형식에서는 끊임없이 기술을 이용하며 발전해왔다. 200년 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를 보면 지루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도 실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하게 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규범을 써내려가는 중이다. 좋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고충길 대표는 “공연을 영상으로 옮겨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공연에서 느끼는 몰입감은 현장보다 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요소가 동원되어도 실제 공연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만들어진 공연을 잘 전달하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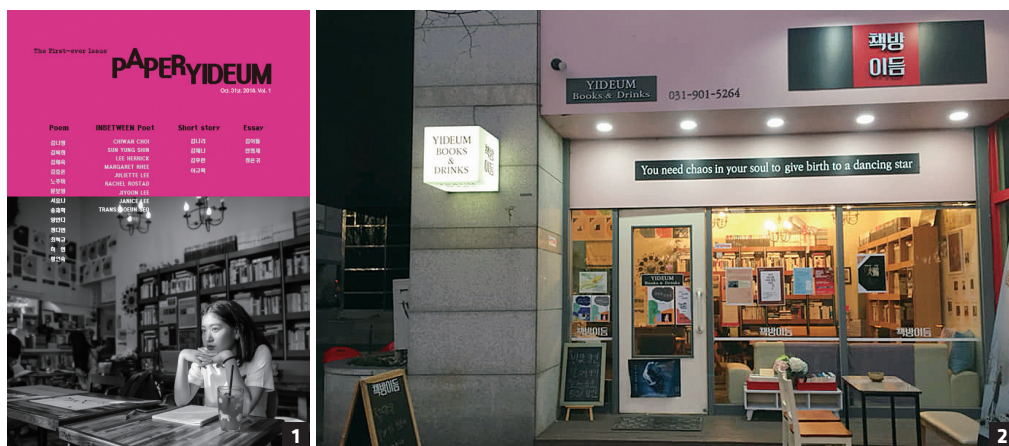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양정웅 연출가는 “오늘 많은 영감과 화두를 얻어갔으면 한다. 서로 의미 있는 작업으로 다시 만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첨단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전통적인 공연예술의 형식과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색다른 형태의 작품이 더 많이 창작되기를 기대한다.

글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손흥주

책 처방 인생은 계속된다

책 처방사 김이듬

2001년 계간 <포에지>로 등단해 시집 <별 모양의 얼룩>, <명랑하라 팜 파탈>, <말할 수 없는 애인>, <표류하는 흑발> 등을 펴낸 김이듬 시인은 일산에서 ‘책방이듬’이라는 독립서점을 운영한다. 그의 서점이 다른 독립서점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은 일대일 개인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적합한 ‘책 처방’을 해준다는 것. 몇 권의 책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는 없지만, 책이 주는 위로에 기대고픈 이들을 위해 그의 책 처방은 오늘도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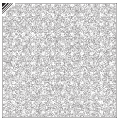
어느 날 갑자기 운명처럼

방금 이제니 시인과 통화했다. “이듬 언니는 강의 경력도 길고 시집도 많이 냈는데, 왜 책방을 해요?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난생처음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할 때 거의 모든 지인들이 왜 말렸는지를 깨달아가고 있지만, 이상 시인이 <겨울>에서 말한 ‘사업’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나는 중얼거린다. “잘은 모르지만 외로운 사업에 골몰할게요.”

과연 작은 책방이 동네에서 문학의 실험실, 문화운동의 장이 될 수 있을까?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하여 용역이나 지원금을 받는다면 ‘독립책방’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 자존감을 스스로 훼손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과 질문들에 빠져 있을 즈음이었다. 그러니까 재작년 늦가을 저녁 무렵, 어떤 사람이 지친 표정으로 책방 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작고 마른 나뭇잎이 붙어 있

었다. 그는 꽤나 먼 거리에서 걸어왔다고 했다. 그가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마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평소처럼 손님들의 독서 취향을 파악하고 서가에서 몇 권의 책을 꺼냈는데 그가 말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은데요. 상담 후에 제게 필요한 적당한 책을 추천해주시겠어요?” 그는 인근의 킨텍스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는 청년이었고 현재 생활부터 과거 학창시절과 어릴 적 얘기까지 털어놓았다. 두어 시간 줄곧 나는 듣는 입장이었다. 듣는 게 말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의 고통과 슬픔, 위기의식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걸 느꼈다. 그는 내가 권한 시집 두 권을 샀다. 다소 밝고 평안해진 얼굴로 미소를 띠며 인사했다. 나는 쌀쌀하고 퉁퉁한 길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책방으로 들어와 시를 썼다. 그날 이후, 나는 책 처방을 시작했다. 그와의 대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



- 1 '책방이름'에서 발행하는 문학계간지 <페이퍼이름> 창간호.
- 2, 3 김이름 시인이 직접 책 처방을 해주는 '책방이름'.
- 4 김이름 시인은 1년째 모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면을 통해 책 처방을 하고 있다.

해 달라고 했다

사람들은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내가 해엄치는 것을 논다고 말하며 손가락질한다

해저터널로 들어온 아이들도 죽음을 앞둔 어른처럼 돈을 안다
유리벽을 두드리며 나를 깨운다

나는 산호 사이를 헤엄쳐 주다가 모래 비탈면에 누워 사색한다
나는 몸통이 가는 편이고 무리 짓지 않는다
사라진 지느러미가 기억하는 움직임에 따라 쉬기도 한다
누가 가까이 와도 해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 곁에서 책을 읽고
오늘처럼 돈이 필요한 날에도 팔지 않는 책이 내게는 있다
궁핍하지만 대담하게
오늘처럼 인생이 싫은 날에도 자라고 있다

_김이름 <아쿠아리움>

“책은 도끼다”

최근에 나는 책 처방을 예약제로 간격을 두고 침착하게 하고 있다. 운동 처방이나 약 처방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일대일로 만났을 때 즉시 처방이 될 법한 책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책을 일주일 내로 보내주기도 한다. 책갈피에 길지 않은 손편지도 끼워 넣어서. 또한 1년째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책 처방을 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이들의 고민 상담을 받는데, 몇 분에게 장문의 서신과 각자 세 권의 책을 권해드리는 형식이다. 몇 권의 책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거나 직면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어쩌면 책은 상처나 환부를 쓰다듬고 위로하며 덮는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가발려 침예한 통증과 직면하게도 한다. 카프카의 말을 빌리자면 “책은 도끼다”. 우리의 굳어진 사고의 틀과 얼어붙은 감수성뿐만 아니라 병든 자기 내면을 내리치는 영혼의 연장이라는 말일 것이다. 나는 오늘도 자기 혁명의 일환으로 책 처방을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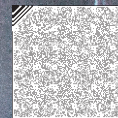
글 · 사진 제공 김이름_시인, '책방이름' 대표

명한 어떤 직분 같았다. 그러니까 책 처방사의 계기도 우연히 발생했다. 어릴 적, 내 심신이 책에 홀린 것처럼, 재작년 어느 날 갑자기, 당장 책방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듯한 예감처럼.

오늘처럼 인생이 싫은 날에도 나는 생각한다
실연한 사람에게 권할 책으로 뭐가 있을까
그가 푸른 바다거북이 곁에서 읽을 책을 달라고 했다

오늘처럼 인생이 싫은 날에도 웃고
오늘처럼 돈이 필요한 날에도 나는 참는 동물이기 때문에
대형어류를 키우는 일이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본다
최근에 그는 사람을 잃었다고 말한다
죽음을 앞둔 상어와 흑가오리에게 먹이를 주다가 읽을 책을 추천





우리가 순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거야.

영화 <보이후드> 중에서

문화비축기지
사진 조현우



그럼에도 공연 시장이 성장하려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 제공 의무화 향한
엇갈린 시선

그동안 ‘반쪽짜리’에 불과했던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이 오는 6월 25일부터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을 시작한다. 공연 시장의 투명화로 산업적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공연 관계자들은 오는 6월 25일부터 공연 관련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대한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4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공연 시장은 그동안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든 ‘깜깜이 시장’으로 불려왔다. 주요 티켓 예매처마다 예매 순위도 다른 데다 정확한 티켓 판매액도 공개되지 않아 공연 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대형 뮤지컬의 흥행과 함께 공연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티켓 예매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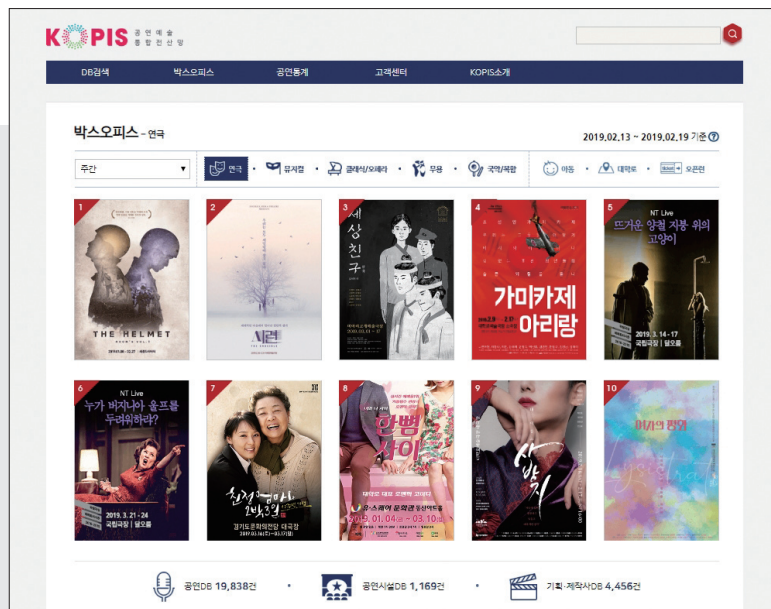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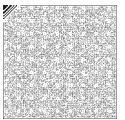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1년부터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과 비슷한 형태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설치를 추진해왔다. 2014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5년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연 정보 전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반쪽짜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2016년 인터파크를 비롯한 주요 대형 예매처 6곳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참여를 결정했지만 정보 제공 주체인 공연 기획·제작사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그동안의 데이터 수집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정확한 정보로 시장 투명화 기여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연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공연 관계자의 범위를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제작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들 공연 관계자가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도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부분은 정확한 공연 예매율을 바탕으로 흥행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통계 자료 등의 확보도 수월해진다. 문체부는 앞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연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연을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수집된 정보 중 일부는 포털사이트 내 공연 관련 페이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연 관계자들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구체적인 범위는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제작비와 티켓 매출까지 공개되는 영화와 달리 공연은 티켓 예매율까지만 공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 관계자들에게 민감한 매출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www.kopis.or.kr) 화면 갈무리.

공연 시장 투자 위축 우려도

공연 관계자들이 그동안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대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제작비와 매출 등 공연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투자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뮤지컬의 경우 중소 규모 제작사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른 공연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국악 등 장르마다 제작 방식도 다르고 공연장 규모에 따라 티켓 가격도 제각각인 공연의 특성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큰 상황이다.

정인석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은 “공연 제작사들이 근본적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주도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회장은 “공연 제작사마다 시스템을 갖춰 공연을 제작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공업처럼 제작하는 곳도 있다”며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이토록 다양한 제작사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티켓 예매처 입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공연 시장의 정확한 정보 확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제성을 띤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 산업 제반 주체의 입장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연계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만큼 반대급부로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공연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이다. 원종원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교수는 “공연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지금까지 적자를 낸 공연의 손해를 다른 공연으로 벌어서 메우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공연계의 관행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 장병호_이데일리 기자

거리로 내몰린

예술가들

양주시립예술단 해고 논란

경기도 양주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지난해 연말 전격 해체했다. 시립합창단 25명과 교향악단 35명 등 60명의 예술단원이 일터를 잃고 새해 벽두에 거리로 내몰렸다.

예술단 해체와 예술단원 집단 해고는 칼로 두부를 자르듯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뤄졌다. 양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8일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2019년 운영 예산 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 양주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달 26일 해촉 통보 공문을 연습실에 붙이며 예술단원의 해고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양주시립예술단 60명 단원이 해고된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과 시의원, 공무원 등이 협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집단 해고된 예술단원들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

노조 설립이 예술단 해체 사유?

양주시립예술단이 어쩌다 해체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예술단 내부 분란, 노동조합 결성, 예산 낭비 등 표면상 드러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는 노조 결성이 꼽힌다. 양주시립예술단 노조는 “양주시가 예술단을 해체한 것은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시장과 의회가 노조 결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포문은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인 양주시의회가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황영희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본회의에서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노조를 설립했는데, 시가 왜 그런 곳에 예산을 세워줘야 하느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김종길 시의원 등도 “노조를 만든 곳에 예산을 줘야 하느냐”며 거들었다. 일부 시의원은 “단원은 60명이 넘는데 (송년음악회) 관객은 100명도 안 됐다”며 예산 낭비를 이유로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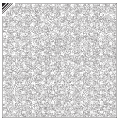
양주시는 노조 때문에 예술단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해체 책임을 시의회에 돌렸다. 시의회에서 시 재정과 사업 효과,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됐다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몇몇 시의원들이 “우리는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고 해고는 시에서 한 것”이라며 “예산이 다시 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양주시는 “예술단 운영은 지난해 말에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며 “재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와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상화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 해체 책임 회피에만 급급

해고된 60명의 예술단원들은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와 작은 음악회를 열어 거리투쟁에 나서고 있다. 악기를 연주하던 손에는 ‘해체를 취소하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이 들렸고, 노래 대신 구호가 울려 퍼졌다. 양주 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도 시민공동대행위를 꾸렸다.

예술단원들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월 50만~60만 원씩 연습수당을 받으며 10년 넘게 활동해왔다. 공연장과 연습실도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공연을 위해 애써왔다고 한다.

양주시립예술단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지난해 9월 18일이다. 지휘자의 독단적인 예술단 운영과 막 말 등 '갑질'이 노조 결성의 원인이 됐다. 김민정 예술단노조 지회장은 “지휘자의 부당한 외부행사 동원, 폭언 등을 시정해줄 것을 시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단원들이 강등, 연습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아 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노조원은 “노동조합에 대한 공공연한 혐오가 음악인들에 대한 해고로 이어졌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는 양주시의회에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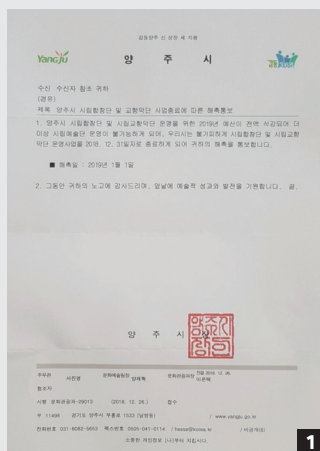
양주시민들 “일방적인 예술단 해체는 폭거”

양주시민들은 시와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시립예술단을 일방적으로 해체한 데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시민 ㄱ씨는 “10년의 역사를 가진 예술단을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하루아침에 독단적으로 해체하다니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하물며 그 이유가 노조 탄압 때문이라면 현 정권의 기조에도 분명히 역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ㄴ씨는 “서울에 살지 않아도 수준 높은 공연을 볼 수 있어 자랑스러웠는데 해체 소식을 듣고 실망했다. 시민에게 평안과 행복감을 전해주는 예술단을 해체한 것이 누구의 결정이며 그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ㄷ씨는 “양주시 의원이 예술단의 노조 결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시민 호응이 적은 것은 시 공무원의 무능과 소통 부재를 탓해야지 10년간 유지돼온 예술단의 실력을 탓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주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은 “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생활 보장을 위해” 2003년과 2010년에 각각 설립됐다. 시립예술단은 그동안 공연을 요청하는 곳이면 학교와 군부대, 병원, 경로당 등 장소나 관객 수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사랑을 받아왔다.

글 박경만_한겨레 기자 사진 제공 한겨레

- 1 경기도 양주시가 지난해 12월 26일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연습실 게시판에 부착한 ‘사업종료에 따른 해촉 통보’ 공문.
- 2 지난해 12월 말 집단 해고된 경기도 양주시 시립예술단원과 시민공동대책위 회원들이 양주시청 앞에서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대성을 질문하다

개관 10주년 맞이한 남산예술센터의 2019년 시즌 프로그램

2009년 개관한 남산예술센터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창작 초연 중심 제작극장을 표방하는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10년간 동시대의 화두를 제시하는 3,716명의 창작자들과 동행하며 156편의 연극, 1,290회의 공연을 올렸고 약 25만 명의 관객들과 만났다. 남산예술센터의 지난 10년은 단지 극장만이 아니라 연극계, 관객과 함께 만든 시간이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지난 10년 동안 극장의 역할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남산예술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동시대성'이다. 올해 시즌 프로그램 역시 한국 사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동시대적 화두를 담은 연극 6편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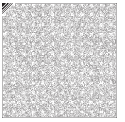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죽음과 고통

2019 시즌 프로그램의 막을 올리는 〈7번국도〉(작 배해률, 연출 구자혜, 4월 17일~28일)는 남산예술센터 상시투고 시스템 '초고를 부탁해'를 통해 발굴된 작품으로 2018년 서치라이트 낭독공연으로 관객과 만났다. 2년간의 작품 개발 과정을 거쳐 2019년 시즌 프로그램으로 다시 무대에 오른다.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과 군 의문사 등을 다룬 이 작품에는 현실로부터 출발한 허구 속 인물이 등장하지만 극 중 인물들이 마주하는 죽음만큼은 사실과 다름없다. 가해자의 시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시도해온 연출가 구자혜는 다시 그 시선을 돌려 피해자를 바라봄으로써 연극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직시해야 하는지, 어떻게 당사자들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극단 꼬끼리만보와 공동 제작하는 〈명왕성에서〉(작·연출 박상현, 5월 15일~26일)는 세월호 당시의 실제 증언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성 작품이다.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망자들과 남겨진 이들을 다시 불러내어 그동안 유보해온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진혼(鎮魂)을 시도하는 씩김굿의 의도를 담았다. 작품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억하며, 한국 사회의 바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픔과 외면했던 말들을 들어 올린다.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망자들과 남겨진 이들을 위해, 그렇게 지금은 우리 곁에 없는 망자들이 함께 있다는 각성을 하게 만든다.

소설 〈채식주의자〉로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가 원작인 〈Human Fuga〉(휴먼 푸가)(원작 한강, 구성 공동 창작·연출 배요섭, 11월 6일~17일)도 무대에 오른다. 작가 한강의 작품이 연극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영화, 오페라 등으로 만들어보자는 제의를 고사했던 작가는 그 누구의 얼굴도 될 수 있는 '소년'이 특정한 이미지로 정형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또 인간이 무엇이기애 어떻게 다른 인간에게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무엇이기애 극악의 폭력 속에서도 이타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Human Fuga〉에는 소설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 소설을 무대에서 재현하지도 않는다. 이



남산예술센터 2019 시즌 프로그램 기자회견담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광주 5·18민주화운동에서부터 시작해 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1970~1983년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1965년 인도네시아의 '반공대학살', 2009년 스리랑카의 '목격자 없는 전쟁' 등 각기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일어났던 죽음의 역사들을 리서치하고 있다. 광주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다. '푸가'(Fuga)라는 음악적 형식으로 풀어낸 이 작품은 일종의 퍼포먼스극으로 관객은 극장에서 거대한 죽음과 사회적 고통의 이미지를 목도하게 된다. '고통'을 감각함으로써 몸에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에 한 발 더 다가서게 하는 것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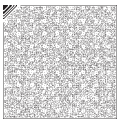
2018년 남산예술센터 초연 당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으며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월간 한국연극 '2018 공연 베스트 7', 제5회 동아연극상 '작품상'을 수상한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원작 장강명, 각색 정진새, 연출 강랑원, 10월 9일~27일)이 다시 돌아온다. 제20회 문학동네작가상을 수상한 작가 장강명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고통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남겨진 사람들을 그린다. 살인을 저지른 남자, 남자와 서로 사랑한 여자, 남자에게 자식을 잃은 어머니 등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기억과 고통, 속죄의 문제를 다룬다. 오직 인간만이 과거에서 현재라는 한 방향으로, 한 번씩만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전제를 뒤집으며, 해체된 시간 속 경사진 두 개의 달 위에 펼쳐지는 배우들의 신체행동 연기는 관객에게 매우 낯설고 새로운 감각을 전달한다. 원작 소설과 연극을 비교하며 보는 것도 보다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공연 모습.

과거로부터 돌아보는 2019년 한국 사회의 자화상

제8회 벽산희곡상 수상작인 서민준 작가의 〈목적지수〉(작 서민준, 연출 이래은, 6월 26일~7월 7일)는 초나라 혜왕 50년(기원전 439년),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 목자가 강대국인 초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초혜왕과 모의전을 벌였다는 일화를 바탕으로 해 연극적인 상상력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박진감 있는 전개, 리듬감 넘치는 대사, 살아 있는 극성으로 강렬한 흡입력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전쟁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한 이들을 조명해 정의의 실천이 부재한 이 시대에 의인이라 어떤 사람인지 본질적인 화두를 던진다. 연출을 맡은 이래은은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자본주의와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2019년과 어떻게 대비되는지 주목한다. 고전적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등장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폭력을 밝혀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을 예정이다. 〈드라마센타, 드라마/센타(가제)〉(작 이양구, 연출 류주연, 9월 18일~29일)는 남산예술센터가 주인공이다. 1962년 개관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타는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공연장으로 동량 유치진(1905~1974)이 미국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정부가 제공한 땅에 세웠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지난 10년간 극장 소유주인 서울예대(학교법인 동량예술원)로부터 임대했고, 서울문화재단이 남산예술센터라는 이름으로 위탁 운영해왔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예대가 서울시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남산예술센터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현장 연극인 572



명과 49개 단체는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그 과정에서 드라마센터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목도했다. 이에 남산예술센터는 현장 연극인들과 연대해 극장을 둘러싼 드라마틱한 이슈와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고자 이 작품을 기획했다. 드라마센터의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사유화 논란에 대해 기존의 사료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극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한국 연극의 과거사를 바로잡는 동시에 동시대 공공극장의 존재 의미를 질문한다.

연극계와 함께 일군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의 남산예술센터

이번 시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죽음과 고통을 다룬 작품들이 많다. 누군가의 희생과 침묵을 당연시하고 경쟁만을 가속화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혹자는 현실 세계도 힘든데 극장에서까지 힘든 연극을 보고 싶지 않다고도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성숙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 일상의 무더진 감각을 환기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연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남산예술센터는 ‘동시대성’이라는 이름의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이면을 비추고 있다.

남산예술센터가 위탁 운영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지난 1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선을 담아내려면 공공극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연극계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남산예술센터의 지난 10년이 극장만의 것이 아니듯, 남산예술센터의 앞으로의 시간 역시 한순간에 뒤틀려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기에, 다양한 역할과 미션을 가진 보다 많은 공공극장들이 생겨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담아내기를 바란다.

글 김지우_남산예술센터 기획제작 PD 사진 남산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 2019년 공연 일정

구분	일정	공연명	작가 및 연출
공동 주최 〈중국희곡 낭독공연〉	3. 12~3. 13	청개구리	작 귀스싱, 연출 구지혜
	3. 14~3. 15	만약 내가 진짜라면	작 사예신, 연출 전인철
	3. 16~3. 17	뽕나무별 이야기	작 천쓰두, 양젠, 주샤오팡, 연출 김재엽
기획 프로그램 〈서치라이트〉 (Searchwright)	3. 19	왕서개이야기	작 김도영, 연출 이준우
	3. 20	구구구절절절하다	작·연출 김은한
	3. 21	우리, 가난한 사람들	공동 창작·연출 김예나
	3. 22	영자씨의 시발택시	작·연출 박주영
	3. 26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작·연출 김민주
	3. 27	아무튼 살아남기 - 여캐가 맞이하는 엔딩에 대하여	공동 창작·연출 도은
	3. 28	생존 3부작	작 윤지영, 연출 박지호
	3. 29	삼고무	연출 이세승
	3. 29	삼고무	연출 이세승
시즌 프로그램	4. 17~4. 28	7번국도	작 배해률, 연출 구지혜
	5. 15~5. 26	명왕성에서	작·연출 박상현
	6. 26~7. 7	묵적지수	작 서민준, 연출 이래은
	9. 18~9. 29	드라마센터, 드라마/센터(가제)	작 이양구, 연출 류주연
	10. 9~10. 27	그름,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원작 장강명, 각색 정진세, 연출 강량원
	11. 6~11. 17	Human Fuga	원작 한강, 공동 창작·연출 배요섭

모든 국민의

즐거운

여가생활을 위해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국민들은 '워라벨'을 맞춰 생활하고 있을까? 국민들이 일상에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올해 초 발표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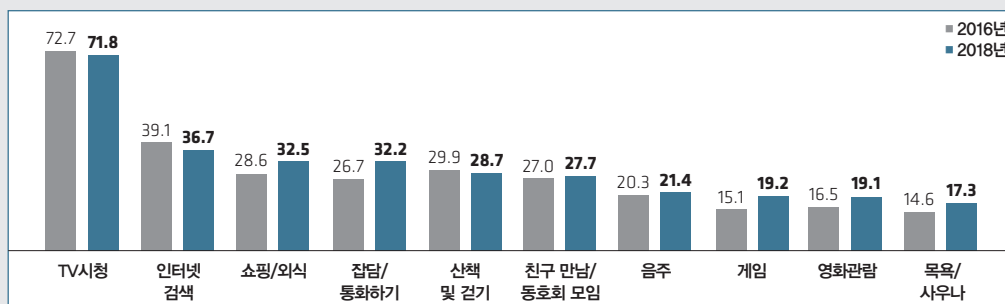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민들의 여가활동 수요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 간격으로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6년 여가백서 내 〈국민여가활동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2007년 5월 통계청의 승인(승인번호 제 113014호)을 받았다.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다양하게 변하는 국내 여가환경에 따라 국민의 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하여 생활양식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가 2년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분석도 가능하다.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2018년 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1만 498명이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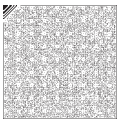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면 평일은 1.2시간 감소했고, 휴일은 0.3시간 증가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4.0시간인 데 비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8시간으로 1.2시간이 적었다. 월평균 여가비용은 15만 1,000원으로 2016년의 13만 6,000원에 비해 1만 5,000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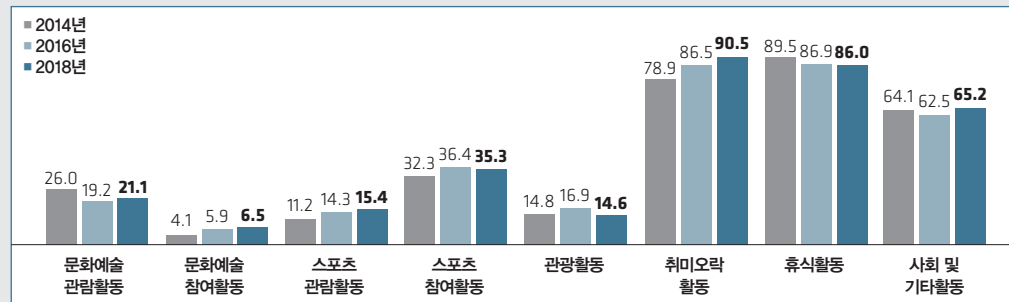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활동 1순위는 수년간 TV 시청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51.4%에서 2016년 46.4%, 2018년 45.7%로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순위 기준으로는 TV 시청(71.8%), 인터넷 검색(36.7%), 쇼핑과 외식(32.5%) 순이었다. 잡담과 통화하기(5.5%), 게임(4.1%)의 상승 폭이 컸다.

주로 하는 여가활동(1~5순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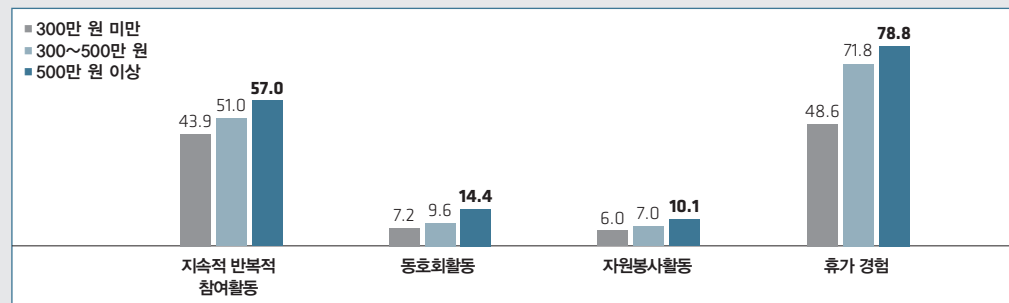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1~5순위 기준)



가구소득별 여가활동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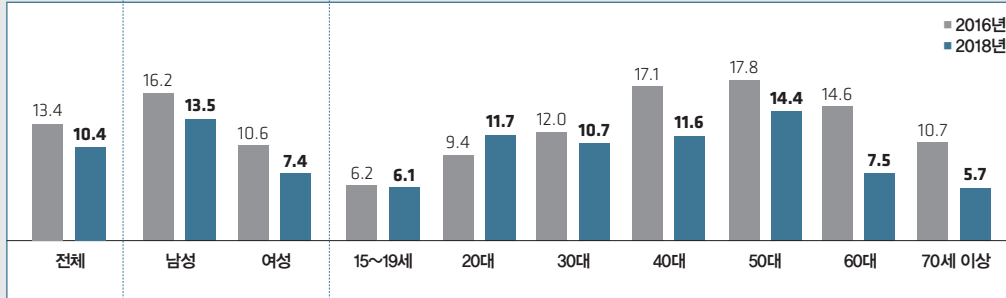
휴식보다 취미활동

여가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휴식활동을 가장 많이 한 반면 2018년에는 취미오락활동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활동(86.0%)보다 취미오락활동(90.5%)의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2016년에 비해 휴식활동과 관광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은 감소했고,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은 증가했다. 특히 문화예술참여활동은 2014년 4.1%에서 2016년 5.9%, 2018년 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문화예술관람활동은 2014년 26.0%에서 2016년 19.2%로 하락했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21.1%로 다시 수치가 올라갔다.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이 있는 경우는 남성이 52.2%로 여성에 비해 더 많았다.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 주, 월, 연 단위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5.7%로 가장 높고 50대 54.1%, 60대 54.0% 순이었으며, 70세 이상은 39.5%로 낮았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한 번 이상 참여한 개별 여가활동의 수는 1인 평균 19개로 2016년 17.2개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의 수가 더 많고, 지속적 여가활동, 동호회활동, 자원봉사활동, 휴가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은 평균 여가활동 수가 16.6개인 반면 500만 원 이상은 20.7개로 평균보다 높았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참여활동을 하는 비율도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으며, 동호회활동은 가구소득

동호회활동 경험 비율



300만 원 미만에서는 7.2%인 반면, 500만 원 이상에서는 14.4%가 한다고 응답해 2배의 차이가 났다. 참고로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 여가비용은 11만 4,900원,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17만 2,600원으로 그 차이는 5만 7,7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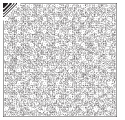
동호회활동은 감소 추세

반면 여가시간에 동호회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 15세 이상 국민의 10.4%가 지난 1년간 동호회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13.4%에 비해 3.0% 감소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여성(7.4%)보다 남성(13.5%)의 동호회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4%에서 11.7%로 증가한 2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동호회활동 비율이 줄었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감소 폭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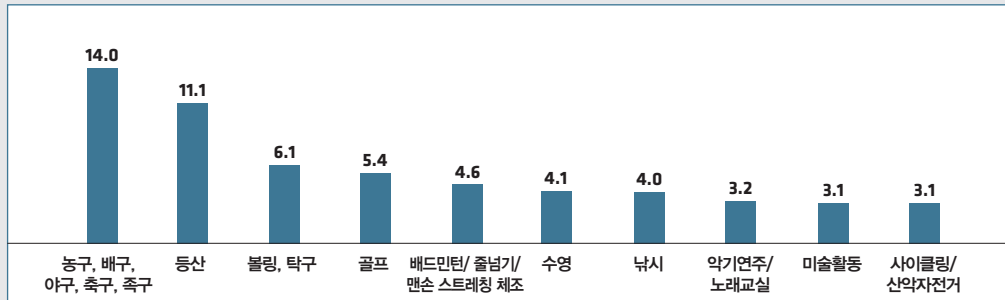
동호회활동 분야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족구(14.0%)와 같은 단체 스포츠와 야외활동인 등산(11.1%)이 많았다. 이는 동호회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037명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다. 볼링, 탁구, 골프, 수영, 낚시 등 상위 7개가 레저스포츠 분야였으며, 문화예술 분야인 악기연주와 노래교실은 3.2%, 미술활동은 3.1%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등산이 12.3%로 가장 높았으나 농구, 배구 등이 10%에서 14%로 증가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한편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1.3시간, 휴일 1.8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가시간 중 활용 비중은 평일 40.3%, 휴일 33.4%로 평일이 더 높았다. 2016년 조사와 비교하면 휴일 여가시간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과 비중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평일 이용시간은 1.3시간으로 같지만 휴일은 1.6시간에서 1.8시간으로 0.2시간 증가했다. 활용비중은 평일은 오히려 1.9% 감소했지만 휴일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웹서핑(31.3%)이며, 그다음은 모바일 메신저(17.9%), SNS활동(14.6%), 게임(14.1%) 순이었다. 음악감상 3.8%, 인터넷 방송 시청과 드라마 및 영화 보기는 각 2.7%, 웹소설과 웹툰 읽기는 2.0%로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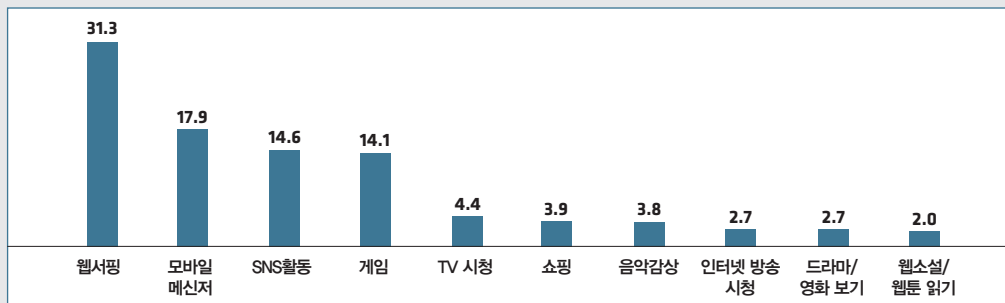
국민들은 여가활동(1순위 활동 기준)을 주로 혼자(59.5%) 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29.7%,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은 8.7%로 나타났다. 이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TV 시청과 인터넷 검색 등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호회활동 분야(상위 10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활동 유형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여가활동

여가활동을 하는 목적으로는 '개인의 즐거움'(3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위해'(18.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4.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서는 47.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23.8%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51.3%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29.9%)가 뒤를 이었다. 경험 부족은 5.5%, 여가정보 프로그램 부족은 5.3%, 여가시설 부족은 3.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여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다양한 여가시설(91.2%)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으며,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9.7%), 공휴일과 휴가 법적 보장(87.8%) 등이 뒤를 이었다. 여가시설에 불만족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지만,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여가시설 확충이 여가생활 활성화에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2018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여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참여하는 여가활동도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소득에 따른 여가활동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여가시간은 고소득층이 더 부족함에도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사 결과와 2018년 6월 발표한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로 삶을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좀 더 세밀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사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글 전민정_객원 편집위원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

맛집을 시작으로 독립서점, 코워킹 스페이스, 레트로 감성의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서며 어느새 '핫플'이 되어버린 연남동과 연희동. 그 동네의 경계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연남장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사회와 만나 호흡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만남의 '장'(場)이다.



- 1 연희동 주택가에 자리한 연남장의 외관.
- 2 연남방앗간. 윤세영식당이 입점한 1층.
- 3 <장기하와 얼굴들-마무리: 벌일 없이 산다> 전시 오픈링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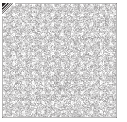
가장 '로컬한' 공간

연희동과 연남동의 경계, 경의중앙선 철로 아래에 위치한 연남장은 무심결에 스치기 쉬운 곳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딘가 익숙한 빨간 벽돌 건물이 제멋대로 자라난 풀과 나무, 낮은 키의 담벽과 한 몸처럼 어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핫플'이라기엔 너무도 담박한 겉모습이라 맞게 찾아온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연남장은 스스로를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라고 소개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카페, 레스토랑,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콘텐츠숍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곳을 상징하는 로고는 공간을 의미하는 한자어 '장'(場)을 변형해 만들었다. 층고가 높고 시원시원한 크기의 유리창이 특징인 1층 공간과, 창작자를 위한 업무 공간인 2·3층이 로고에 나타난 형태와 꼭 닮았다. 연희동 일대에서 보기 드문 면적을 자랑하는 연남장은 40여 년간 유리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탄생했

다. 어느 호텔 입구처럼 거대한 출입문과 시야를 확 트이게 하는 층고, 레스토랑과 카페가 자리한 1층 공간에 드리운 고풍스러운 상들리에까지, 섬세하게 설계된 공간의 요소가 연남장의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든다.

연남장을 구성하는 각 공간을 묶는 키워드는 '로컬'이다. 로컬 경쟁력을 위해, 로컬 콘텐츠를 소개하는, 가장 로컬한 공간인 셈이다. 많은 이들에게 고풍스런 분위기와 독특한 메뉴로 잘 알려진 1층은 지역 기반의 식음료를 수집, 선별해 소개한다. 이곳에는 연남방앗간(카페)과 윤세영식당(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다. 연남방앗간은 카페 겸 식음료 커뮤니티 공간으로, 연남동에 위치한 본점이 이곳에 분점 형태로 들어왔다. 다른 카페와 달리 전국 각지에서 수확·생산한 농산물과 상품을 적극적으로 브랜딩해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 영농조합과 연계한 새봄 녹차와 진피 홍차, 경북 태안에서 참기름과 미숫가루를 공수해 제조한 참깨라떼처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도 있다. 공간 한편에는 책, MD, 농수산품 등 연남장을 운영하



는 어반플레이가 기획한 로컬 콘텐츠가 채워져 있다.

사실 이 공간은 예술이 더해질 때 진가를 발휘한다. 상들리에에 반사돼 반짝이는 금빛 대형 테이블은 연남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오브제이다. 평소 공간을 찾은 이들에게 소통 공간으로, 창작자들에게 콘센트가 넉넉한 업무 공간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연이나 킥 퍼포먼스 등 행사가 열릴 때면 예술가의 무대이자 강연자의 연단으로 변신한다. 이때 높은 층고는 풍성한 울림을 만들고, 고풍스러운 상들리에에는 조명으로 빛나며, (아는 사람만 아는) 복층 공간은 오페라 하우스의 발코니석이 된다. 실제로 축제 〈연희 걷다〉의 재즈 콘서트와 〈도시살롱〉 팟캐스트 공개 방송 등이 이곳에서 열렸다. 화이트 큐브 형태인 지하 1층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기획에 따라 다채롭게 변모한다. 지난해 12월엔 장기하와 얼굴들의 마지막을 기념한 전시 〈장기하와 얼굴들—마무리: 별일 없이 산다〉가 열렸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로컬 콘텐츠가 사회와 접점을 이루는 공간이라면, 2층과 3층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업무 공간이다. 2층은 최대 12명까지 입주 가능한 분리형 오피스와 오픈형 1인 업무 공간으로 구성되며, 3층은 주거 형태의 독립 스튜디오로 꾸려져 있다. 디자인, 식음료 개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등 이름만 들어도 흥미로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해 있다.

‘전통’과 ‘지역’의 가치 끌어올리기

어반플레이가 연남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로컬 라이프스타일’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글로벌에 대항하는 로컬, 즉 ‘지역성’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할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전까지 국가와 공공의 지원으로 명맥을 이어온 ‘지역성’을 더 이상 공공의 역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략적으로 취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너무 빠르게 미래만을 향해 달려온 한국 사회에서 ‘전통’과 ‘지역’이 가진 무궁한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로컬 콘텐츠의 힘을 믿는 이들이 머리를 맞대 연남장이라는 공간을 탄생시켰다. 그 공간에 로컬 콘텐츠의 가치를 채워 넣는 것은 지향점을 공유하는 이들의 몫이다.

도시건축 전문 작가 음성원은 밀레니얼 세대의 등장으로 도심 속 공간이 일종의 팝업 스토어처럼 끊임없이 그 목적과 형태를 변화한다는 ‘팝업시티’ 개념을 이야기한 바 있다. 공유경제의 플랫폼은 장소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그러하기에 도시 공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창작자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자 매력적인 로컬 콘텐츠가 도시와 호흡하는 만남의 장, 연남장을 찾는 이들 모두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글 김태희_자유기고가 사진 제공 어반플레이

숲과 사람을 잇다

꽃 피는 책 & 숲 공작소

‘모기동’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양천구 목2동. 주민들이 매년 축제를 열고 젊은 예술가들은 공방을 지키며 방과 후 교사로도 일한다. 눈에 띄게 높은 건물은 없다. 마을 협동조합이 활발히 운영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여기가 내가 아는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다. ‘꽃 피는 책 & 숲 공작소’(이하 꽃 피는 책)는 이런 모기동의 특색을 한데 담고 있는 공간이다.



- 1, 2 꽃 피는 책 & 숲 공작소 외부 및 내부 전경.
- 3 어린이 숲 놀이.
- 4 숲 그림책 함께 읽기.

자연과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간

꽃 피는 책을 운영하는 김혜정 씨는 자연과 책을 사랑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데 모아놓고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한다. 초등학교를 마주 보고 있어 아이들의 ‘핫플’이기도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숲 놀이를 하며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체험하게 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협동의 의미 등을 체득하도록 도와준다. 공간 바로 뒤에 용왕산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것도 장점이다.

“아이들은 모방 심리가 강해서 뭐든 다 따라 해요. 제가 꽃에 물을 주면 서로 주겠다고 하고, 책을 읽으면 자기들도 열린 책을 꺼내와 옆에서 보곤 하죠. 물을 준 화분에서 싹이 나면 정말 좋아하고 신기해해요. 아이들이 자연과 책에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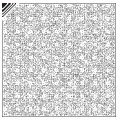
성인들과는 숲 체험을 한다. 숲에 대해 해설도 하고 차를 마시며 그림책도 본다. 시를 읽으며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방송작가

로 오랜 기간 활동하고 20대 때부터 자연에 관심을 가져 현재 유아 숲 지도사, 숲 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숲 전문가이기에 이런 활동이 어색하지 않다.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고 책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든데 그럴 때 자연을 접하고 식물을 기르고, 숲을 거닐고 산책을 하며 많은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소소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곳

공방을 운영하는 예술가들과 협력해 가족으로 북커버를 만든다거나 도예를 하며 화분을 만들 수도 있다. 분재하는 법도 배울 수 있고 아픈 식물을 가져와 치료할 수도 있다. 공간은 대관을 주기도 하는데 동네의 젊은 예술가가 공연한 적도 있다. 공간을 빌려 그간 자신이 모은 책을 소개한 사람도 있었다. 딱히 정해진 것이 없고 거창하



지도 않지만, 소소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

김혜정 씨는 공간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작년에는 뭐든 실험적으로 시도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한다.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는데 혼자 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어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도시 안에 있는 숲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숲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 같은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숲에 갈 때 망설이지 않는 것처럼 꽃 피는 책도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문득 혜정 씨가 물었다. “혹시 저희 페이스북 보셨어요?” 순간 취재 전날 연락하니 너무나 반가워하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조심스레 물었던 일이 생각났다.

사람을 찾습니다.

2월 19일 혹은 2월 20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꽃 피는 책’에 방문하겠다고 연락주신 분~ 제가 외부 일정이 생겨서 약속 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번호를 저장 안 해놓아 이런 불상사가 생겼네요. 부디 이 글을 보시길...

꽃 피는 책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 취재 후어나 보았다. 며칠 동안 공공 앓았을 그를 생각하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꽃 피는 책이 사람들을 숲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걸 지키고자 마음을 먹었다. 공간을 나와 바로 뒤, 용왕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제공 꽃 피는 책 & 숲 공작소



낮설수록, 불편할수록 아름답다

공연 〈새넙곶나거든〉과 〈시〉

새해 벽두, 인상적인 두 작품을 보았다. 하나는 민간지원재단인 우란문화재단이 선보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기획 시리즈 '시선' 중 한 작품인 강량원 연출의 〈새넙곶나거든〉, 다른 하나는 지난해부터 국립창극단이 시도해 오고 있는 신창극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 〈시〉다.

먼저, 이미지로 다가온 두 작품은 모두 신선했다. 전통을 소재로 한 공연의 클리셰를 깬다. 〈새넙곶나거든〉은 서체부터 전통적인 분위기가 강했으나 레이아웃 등을 단순화해 현대적인 분위기를 지켰다. 〈시〉는 출연자들의 의상부터 컬러와 소품까지 모던한 미니멀리즘을 보여줬다. 도대체 어떤 작품이기에 포스터부터 남다르게 말을 걸어올까?

두 작품은 공동 창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새넙곶나거든〉은 조선시대의 관기 홍랑이 남긴 시조 한 수에서 출발하여 연출 강량원,

기획 석재원, 배우 지현준, 음악 김시율, 작가 임영옥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만남을 통해 서사 대신 18쪽의 그림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네루다의 시를 재구성한 〈시〉는 유태평양과 장서윤이 창작뿐 아니라 작창으로 참여했다. 양손프로젝트의 양종욱, 양조아 배우는 위크숍 과정을 통해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참여가 아니라 존재와 감각 훈련을 이끌어냈다.

두 작품의 연출은 신체 훈련을 강조하는 극단 '동'의 강량원과 양손



1 <우란문화재단 시선: 새넙곶나거든> 공연 모습.
2 국립창극단 신창극 시리즈 3 <시> 공연 모습.

프로젝트의 박혜선이 각각 맡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 음악극 분야에서 그리 활발하게 연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연출자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연출은 스스로 낯선 실험을 즐긴다. 기존의 대본과 연출 문법으로 역할을 재현하고 주제를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낯선 작업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낯선 작업, 낯선 만남 등 낯선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과 상황을 오히려 기다리며 배우도 몰랐던 자기 자신, 연출도 몰랐던 자기 작품에 대한 잠재 역량을 끌어 올리며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관객들의 경험은 저마다 별개이지만 홍상수 감독의 영화가 계획된 대로 찍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라는 매력이 있는 것처럼, 두 연출 또한 연출자가 지시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작품에 참여하는 모두를 제각각 작업의 주체로, 작업의 '당사자'로 만들어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더 높인다. 이는 창작 작업의 민주화로 진화하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조선시대 문장가 최경창과 관기 홍랑의 세 번의 만남과 죽음이란 이별

<우란문화재단 시선: 새넙곶나거든> 1. 21~1. 27, 우란문화재단 우란2경

남녀의 사랑 이야기지만 남자배우만 홀로 등장한다. 잘생긴 지현준

배우를 보고 싶어 하는 관객의 바람을 무너뜨린 채 먹으로 물감으로 고통으로 범벅된 얼굴로 나타난다. <새넙곶나거든>의 마인드 매핑에 떠오르는 단어 대신 술한 몸짓으로 공간과 시간을 찍어낸다. 병마에 시달리는 최경창을 달래고, 그를 향한 홍랑의 마음이 피리와 또 다른 음악과 함께 함복 흥원으로 파주의 무덤가로 무시로 상상케 한다.

천장과 바다, 그리고 벽면까지 5면을 둘러싼 산수풍경에 18편의 글과 조명이 포개지고 사라지는 모빌리티 음악극(?)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막바지 즈음 지현준 배우가 넓은 한지를 찢고 들어간 조용한 움직임은 강렬했다. 작가 임영옥이 왜 “사랑이 어떻게 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그 제한적인 테두리를 지우고 비로소 세계와 합일하게끔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창극인가 부조리극인가, 지금까지 이런 창극은 없었다

국립창극단 신창극 시리즈 3 <시> 1. 18~1. 26, 국립극장 하늘극장

국립극장 하늘극장에 들어서서 무대를 보는 순간 놀랐다. ‘앗 이런 무대는 하늘극장에서 처음이야.’ 공연 시작 전 내내 극장 안에서는 하하호호 웃음소리 등 파티에서의 소음이 들려왔다. 부조리극 등을 보던 소극장에서나 익숙한 상황이다. 그물스타킹에 높은 통굽의 구두를 신고 소리하는 젊은 장서윤, 창극에 등장해 허공을 가르는 춤을 추는 양조아 배우, 토끼인형 옷을 입고 낭독하는 양종욱 배우, 그리고 붉은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북을 치며 소리하는 유태평양까지 지금껏 보아온 창극과는 거리가 멀다. 카테일파티 이후 어지럽혀진 공간 속에서 2명의 소리꾼과 2명의 배우는 시를 소리로, 몸으로 연기한다. 제목으로 미루어보건대 생명, 청춘, 사랑, 절망, 안녕으로 순환되는 삶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질문을 던진다. 요즘은 실력보다 태도라는 말처럼 소리나 연기보다 작품에 대한 작업 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두 작품의 리뷰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경험한 ‘언서페 서울’이 떠올랐다. 영국에서 시작된 Unusual Suspects Festival로 사회 변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찾고 담론을 만들어가는 축제이다. 공연 창작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낯선 이들과의 불편한 경험은 경계를 넘어 스스로에게 열리는 도전이다. 낯설다고 도망쳤던 자신으로부터, 미처 몰랐던 자신에게 다가설 수 있으니, 불편할수록 민낯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으니.

글 오진이_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사진 제공 크리에이티브테이블 석영, 국립극장

리얼리즘 미술의 계절

전시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와 <Min Joung-Ki>

정치적 지형 변화 때문인지 리얼리즘 미술을 전면에 내세운 전시가 한창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가, 국제갤러리에서는 민정기 개인전 <Min Joung-Ki>가 열리고 있다. 갑자기 생겨난 트렌드처럼 읽히기도 하지만, 묵직한 담론을 꺼내는 선 굵은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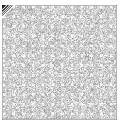
미술, 현대사회에 눈을 뜨다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1. 31~5. 6.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아시아의 근대화 역사는 결코 쉽지 않다. 식민지와 탈식민, 독재와 민주화를 거치며 이념 대립, 전쟁, 민족주의 등 질곡의 역사를 차례로 지나왔다. 그렇다고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같은 길을 걸었던 것도 아니다. 제국주의를 주창한 일본과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역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것만큼 다르다. 그래서 아시아 현대미술은 비

슷한 맥락에 서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풍부하게 펼쳐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아시아 예술가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관습과 억압에 저항했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단순히 부조리에만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미술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났다. 새로운 미술운동이 집중적으로 탄생한 시기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도쿄국립현대미술관, 싱가포르국립미술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아시아센터가 공동 주최, 4년간 관련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끝에 탄생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13개국 작가 100여 명의 작품 170점이 나왔다.

전시는 크게 세 섹션으로 나뉜다. 1부 '구조를 의심하다'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미술 개념 또한 새롭게 정의되는 양상을 다룬다. 회화나 조각 등 전통 매체 대신 신체나 일상의 재료가 등장한다. 이승택의 〈하천에 떠내려가는 불타는 화판〉이 대표적이다. 전통적 조각과 조형 원리를 거부한 작가는 화판에 불을 붙여 한강물에 떠내려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관습적 미술에 대한 저항인 셈이다.

2부에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에 의해 새롭게 탄생한 도시환경이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예술가와 도시'를 주제로, 도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예술 태도가 펼쳐진다. 오윤의 〈마케팅 I: 지옥도〉(1980)는 도시화로 인해 극명해진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고, 린이린의 〈린허 거리를 가로질러 안전하게 옮기기〉(1995), 김구림의 〈1/24초의 의미〉(1969), 데데 에리수프리아의 〈미궁〉(1987~1988)은 일상으로 침투한 도시화와 그 그늘을 살핀다.

3부 '새로운 연대'에선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한다. 군사정권과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태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작가들이 집단적 연대를 통해 사회적 금기와 이데올로기에 도전했다. 한국의 '민중미술운동', 태국의 '태국예술가연합전선', 필리핀의 '카이사한' 등이 그 예다.

전시의 핵심은 '현대사회에 눈뜬 미술'이다. 도망가지 않고 아픈 현실을 직시했던 작가들의 작업은 그만큼 통렬하고 아프다. 미술관 측은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의 정치적 자각, 이전과 다른 예술 태도, 새로운 주체의 등장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전시는 5월 6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6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싱가포르국립미술관에서 순회전을 갖는다.

민중미술의 가능성을 엿보다

민정기 개인전 〈Min Joung-Ki〉 1. 29~3. 3. 국제갤러리

민중미술의 시장성 탐구일까. 국내 최대 상업 화랑인 국제갤러리는 1980년대 '현실과 발언'의 동인이자 민족미술협의회 출신의 대표적 민중화가 민정기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배경으로 자리한 산수화 〈북한산〉으로 최근 유명세를 탄 작가다.



1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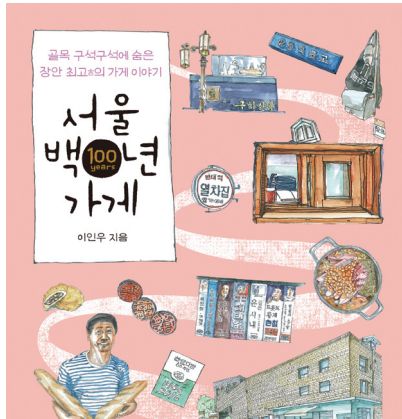
2 〈Min Joung-Ki〉 전시 전경.

민정기 화백은 1980년대 초 스스로 '이발소 그림'이라 지칭한 작품들로 주목받았다. 키치적인 이발소 그림을 표방, 1970년대 당시 국전을 중심으로 주류를 이룬 순수미술과 추상미술에 저항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인문학적 고찰과 민중사관이 녹아 있는 산수풍경과 산수화 지도를 그렸다. 이번 전시도 이 같은 맥락에 있다. 그간 산세와 물세 등 지형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이번엔 도심이 등장한다.

청계천, 사직단, 세검정, 백사실계곡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생생한 풍경이 과거의 풍경과 병치돼 독특한 풍경화를 완성한다. 하나의 작품에 여러 시점과 시간이 섞여 있는 것. 2016년 작 〈유몽유도원〉의 경우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지에 현재의 부암동 풍경이 더해져 부암동의 과거와 현재가 한데 자리 잡았다. 이번 전시에는 1980년대 흑백 판화를 비롯해 구작 21점과 신작 14점이 나왔다. 국내 최대 화랑으로 해외 거장을 주로 소개하는 국제갤러리에서 민중미술을 전시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갤러리 측은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작가는 자신을 '민중미술 작가'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 "특정한 틀에다 집어넣는 것은 그 개별성을 너무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창작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전시는 3월 3일까지 열린다.

글 이한빛_헤럴드경제 기자 사진 재공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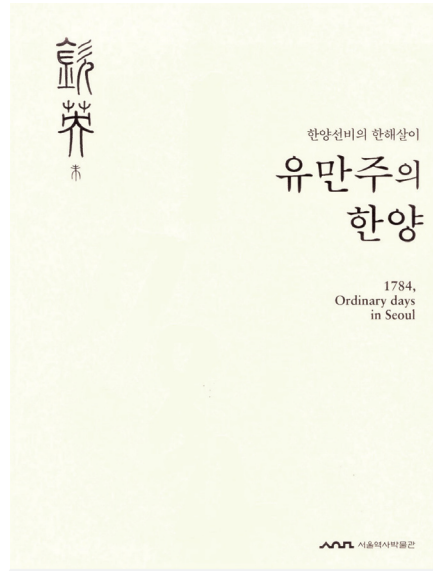
변치 않는 하늘 같은 사람과 마음들이 이곳에서 만납니다.
백년의 길, 백년의 완구, 아! 좋다.

서울이 서울다운 이유는 오래된 가게가 만물어내는 풍경 덕분
이다. 시간을 넘어 문화를 만드는 주인과 꾸준히 찾아주는 손
님이 있기에, 서울 백년 가게는 또 한 번의 백년을 꿈꾼다.

#김제동 방송인

#박원순 서울시장

꿈지락



한양신비의 한해살이
유만주의
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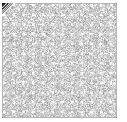
1784,
Ordinary days
in Seoul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유람의 두 가지 방법

책 〈서울 백년 가게〉와 〈1784 유만주의 한양〉

서울은 밤낮으로 달린다. 자동차도, 인터넷도, 집값 상승도 하나같이 속도가 빠르니 하루치 뉴스만 놓쳐도 지난밤 사건사고 소식으로부터 저만치 밀려나버린다. 때문에 외국에선 서울을 ‘젊은 도시’라 평가기도 한다. 지난해 봄,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에서 만난 그리스 출신 여행작가는 “느릿한 내 고향 산토리니보다, 빠른 네 고향 서울이 미래도시 같아 좋다”며 찬양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속도에 대한 피로일까. 요즘 들어 ‘번치 않은 옛것’, 이른바 ‘새로운 복고’를 찾아 서울 유람에 나서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 김새다. 속력과 방향을 거슬러 오르는 것들은 연어 비늘처럼 도도한 빛이 난다. 저항과 반발이 만든 빛은 후세대의 영감이 된다. 새것이 지천인 서울에서, 아래 두 권의 책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공간과 인간을 멋지게 낚아 올렸다.



서울을 빛은 단단한 고집들

〈서울 백년 가게〉 이인우 지음, 꿈지락

얼마 전 을지로 골목 속 무명의 건물들이 지도에서 삭제됐다. 반면 홍대 대로변에는 순식간에 새 건물이 추가됐다. 〈서울 백년 가게〉는 개발 물결에 함부로 동요하지 않고 ‘반세기 이상의 연륜을 쌓아 온’ 24곳의 가게를 조명한다. 31년 차 글쟁이이자 〈한겨레〉 금요 섹션지 〈서울&〉의 선임기자인 이인우가 ‘가게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1년 가까이 취재했다.

혜화동 ‘학림다방’에서 커피 향을 타고 시작된 여정은 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난 ‘보안여관’, 하루 1,000그릇의 냉면을 파는 ‘올밀대’, 3대가 쇠를 버리는 ‘동명대장간’, 인사동의 오래된 문방구 ‘구하산방’, 최초의 재즈클럽 ‘올댓재즈’ 등을 거치며 서울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른다. 가게의 서사는 그대로 서울 풍속사가 되고, 한국 통사가 된다. 책을 읽는 맛이다. 독서 후 1932년 종로구 자하문로에 문을 연 추탕집 ‘용금옥’에서 추어탕 한 그릇을 주문해보면 안다. 한양 각설이패들이 들이켰던 해장국의 온기가 떠오르고, 경성 거리를 걷다가 해방과 분단을 맞고, 6·25 휴전회담과 부산한 시절을 거쳐, 부리나케 밥상 앞으로 돌아온다.

책은 오래된 모든 것들을 우리른다.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시대에 적합하게 계승하고 확장하는’ 쇄신의 노력을 기록한다. 우리네 인생이 경험과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시간이 쌓인 가게에서 오감을 채우는 일은 유익하다. 이런 면에서 음반·고서점 ‘클리프트’를 두고 평한 저자의 말은 삶의 한 비밀을 흘리는 듯하다. “오늘도 술한 양서들이 파지가 되는 치욕을 겪으며 사라져가겠지만, 변변한 간판조차 달지 않은 지하상가의 현책방에는 강물이 흐르듯 책이 흐르고 있다.” 고집이 묘수가 되고, 묘수가 철학이 된 서울 백년 가게들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건실한 땀과 노동의 이야기가 이정표로 다가온다. ‘여행 리스트’가 생기는 건 덤이다.

18세기 선비의 ‘소확행’ 일기

〈1784 유만주의 한양〉 서울역사박물관

여기 ‘일기 쓰기’에 천착한 조선시대 청년이 있다. 21세기 서울, 본인의 일기가 이토록 널리 공개될 줄 알았더라면, 18세기의 한양 선비 유만주는 과연 일기 쓰기를 멈추었을까, 이어갔을까?

서울역사박물관의 기획전 〈1784 유만주의 한양〉(2016. 11. 25~2017. 2. 26)의 전시 도록으로 출발한, 단단하고 재밌는 책을 소개한다. 〈1784 유만주의 한양〉은 전시가 끝난 후에도 ‘유만주’를 기억하려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됐던 책이다.

유만주는 34살의 짧은 생을 살았다. 큰 벼슬을 하거나 명문을 쓴다는 이유로 역사책에 오르진 못했지만, 21살 때부터 죽기 한 해 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근성이 있었다. 그는 일기장에 〈흙영〉이란 이름을 붙였다. ‘책 속에서 만나는 인간의 아름다운 정신을 흠모한다’는 뜻이라 한다. 책은 30살을 맞은 유만주가 1784년의 한양 살이를 쓴 일기를 정리했다.

“백면서생에 소심했다”는 평도 있지만, 그의 일기를 읽다 보면 요즘 말로 ‘소확행’을 실천한 시대에 앞선 인물 같기도 하다. 유만주는 정월이면 새벽까지 친구들과 달밤을 걷고, 춘삼월에는 정릉으로 꽃구경을 갔다.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제사를 줄여도 된다고 여겼고, 서실 창문에도 이름을 붙이는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고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며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눈병과 온갖 질병에도 시달렸다. “밤에 서적을 내루에 옮겨두고 깨끗이 정리하다 닭우는 소리를 듣고 잤다.” 그럼에도 읽기와 걷기,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무명 청년이 남긴 일기장이 18세기 후반 한양 풍속사를 증언하게 된 건 이 ‘기록병’ 덕이다. 유만주는 “〈흙영〉은 제가 완성하지 못한 글이니 불태워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무슨 일인지 전 권이 후대에 전해진다. 230여 년 후 누군가 당신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오늘 어디를 걷고 어떤 한 줄을 쓰겠는가. 책은 서울 시민청에 있는 ‘서울책방’에서 판매한다.

글 전현주 프리랜스 기자. 한겨레 금요 섹션지 〈서울&〉의 객원기자로 서울 여행과 역사, 문화 소식을 쓰고 있다. 기획연재물 ‘3대 사진가의 서울’, ‘우리동네 3·1운동’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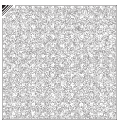


여성의 초상

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와 <더 와이프>

매년 2월 말과 3월 초는 미국 아카데미 시즌 특수를 노리는 양질의 예술영화들이 국내 관객을 만나는 시기다. 올해의 라인업 중 특히 눈에 띄는 작품은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부문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인 두 편의 영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와 <더 와이프>다. 영국과 미국 출신의 두 걸출한 여배우, 올리비아 콜맨과 글렌 클로즈가 전면에 나선 이들 작품은 여성 캐릭터에게 주어진 한계와 선입견을 넘어서는 한편, 그동안 스크린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중장년층 여성의 초상에 대해 흥미로운 단상을 제공한다.





감정의 정치성에 대하여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는 최근 몇 년 새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된 그리스 감독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신작이다. 그는 전작 <송곳니>(2012), <더 랍스터>(2015), <킬링 디어>(2018) 등의 작품을 통해 부조리한 세계의 풍경과 인간 본성의 불가해함을 탐구해 왔다. 그런 그의 첫 사극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는 18세기 초를 배경으로 영국 왕실의 역사에서 자주 간과되곤 하는 스튜어트 왕조의 마지막 군주, 앤 여왕(올리비아 콜맨)과 그의 측근이었던 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프랑스와의 전쟁과 정당 간의 갈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18세기 초 영국, 아이를 잃은 슬픔과 궁에서의 고립된 생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앤 여왕은 총애하는 귀족 사라(레이첼 와이즈)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사라는 그런 여왕의 힘을 빌려 섭정을 펼치고, 그의 정적이자 야당 당수인 할리(니콜라스 홀트)는 호시탐탐 사라의 독주를 견제할 기회를 노린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의 친척이자 몰락한 귀족인 애비게일(엠마 스톤)이 일자리를 찾아 궁에 온다. 사라의 도움으로 왕실의 하녀가 된 애비게일은 놀라운 기지와 수완으로 앤 여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라의 입지마저 위협하기 시작한다.

줄거리만 놓고 보면 유약한 여왕을 둘러싼 두 야심 많은 여성의 파워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호의의 방향을 손쉽게 바꾸는 여왕의 변덕이야말로 두 여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는 변덕스럽고 무모하며 때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영화다. 휘황찬란한 가발을 쓰고 국회에 모인 남자 당원들은 여왕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도 그의 결정이 실은 왕실 깊숙이 위치한 작은 방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다. 많은 사극 영화들이 사소하고도 대수롭지 않은 감정으로 치부해온 여성의 욕망, 질투, 사랑에 정치성을 부여하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는 사극 영화 속 여성 캐릭터에 대한 새로운 활용법을 제시한다.

'아내' 너머의 여성

비온 룬게 감독의 <더 와이프>

<더 와이프>는 평생 작가의 아내로 살아온 한 노년의 여성, 조안(글렌 클로즈)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일상을 뒤흔든다. 조안의 남편 조셉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

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다. 조셉은 크게 기뻐하지만 조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영화는 1992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에 이르기까지 부부의 여정을 조명하며 이제껏 한 번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조안의 사연을 풀어놓는다. 맥 울리처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한 여성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의 말들을 들으며,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지를 신랄한 필치로 묘사한다. 누구보다 문학적 재능이 풍부했던 조안은 주목받을 거란 기대를 일찌감치 접으라는 말에 좌절하고, 여성의 관점을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는 남성 문인들에게 또 한 번 실망한다. 가정에는 작가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자괴지심으로 아내를 타박하는 남편이 있다. 이처럼 여성의 재능을 깎아내리는 사회의 풍경은 여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한계를 규정짓고 주인공 옆자리에 머물도록 만든다. 직업이 뭐냐는 스웨덴 국왕의 말에 '킹메이커'라고 답하는 조안의 태도는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더 와이프>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건 분노와 좌절이라는 감정만으로 수렴되지 않는 인생의 복잡다단함을, 조안이라는 여성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이다. 남편의 분탕질에 분노하다가도 딸의 희소식 앞에서는 금세 다정한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등 한 여성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을 고찰한다. 이 작품으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1947년생 미국 배우 글렌 클로즈의 연기는 발군이다. 자신에게 닥친 불합리한 운명을 거스르지도, 그렇다고 순응하지도 않으며 의연하게 살아나가는 여성의 삶이 그녀의 얼굴에 담겨 있다. "80대인 우리 엄마는 언젠가 내게 '난 아무것도 성취한 게 없어'라고 말했었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를 통해 배운 건 여성들, 그러니까 우리는 양육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가 우리(여성)에게 기대하는 것들이죠. (중략)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취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좇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 마땅히 그래야만 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던 글렌 클로즈의 수상소감은 '아내'(더 와이프)라는 말로 규정지을 수 없는 여성들의 무한한 이야기가 앞으로 더 자주 스크린에 펼쳐져야 할 이유를 알게 해준다.

글 장영엽 씨네21 기자

- 1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 2 <더 와이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고 넘깁니다. 주변에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술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 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문화예술 활동이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 만한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치유허브 8기 입주작가 김해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야기에 어떻게 답변할지 고민하다,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문장에 응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 질문자님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기 위해 제 이름을 본뜬 ‘해리성장애’라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격상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나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고 넘깁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물론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내고 있겠죠. 하지만 속으로 삭이지 않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사람 혹은 장소 등)을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제 꿈이 한때는 배우였는데요(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곧장 그만두었습니다). 대학 연기 수업

1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당시, 독백¹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기가 끝난 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해리야, 너는 슬프면 그냥 울면 되는데 왜 자꾸 웃으면서 우니? 그냥 울지. 그래도 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오열을 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요. 그날 저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기라는 가면에 숨어서라면 그동안 숨겨왔던 나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우울을 마음껏 표현해도 되겠구나. 그때의 짜릿함이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나보고 연극 영화학과를 가라는 거야, 뭐야? 물론, 아닙니다. 직업으로서 배우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그게 누구라도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다닌답니다. 다만, 연기라는 기술이 주는 이점을 가지고 시민 대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멋진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서울예술치유허브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월부터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한때 배우가 꿈이었던 김영영 드림

주변에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올까 무섭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질문자님에게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지만, 저도 실은 가벼운 공황장애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은 서울역에서였는데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지하철을 못 탑니다. 특히 출퇴근길의 지하철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거나, 돌아가더라도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제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세상에는 그냥 감기나 두통처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

다. 너무 걱정 마세요.

지하철로 30분 거리를 버스 타고 2시간 동안 가는 김버스 드림

술을 먹거나 잠을 자는 것 외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문화예술 활동이 있을까요?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 만한 음악이나 그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습니다!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따로 또 같이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나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작년에 보이스와 이야기를 결합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자신의 보이스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데만 익숙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엔 작가, 보이스 코치, 작곡가, 기타리스트 등 4명의 예술가가 협력해 참가자의 이야기로 노래 한 곡을 만들었고요. 이외에도 자신의 삶으로 영화를 찍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그림과 사진 등으로 엮어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경험해보고 본인의 호와 불호를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깐요. 또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예술을 할 때 발생하는 고통과 고단함은 창작자들에게 맡기고, 오직 예술을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참가자들과 함께 많이 웃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며 저 또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모나진 부분들이 다시 둥글어지는 것 같아 행복했구요. 질문자님도 올해 그런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허브에서 만나요!

서울예술치유허브 홍보대사 김허브 드림

글 김해리_자른복스(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8기 입주단체) 대표

서울의 역사를 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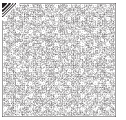
광화문광장과 이순신 장군 동상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조성된 광화문광장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도 있지만 인간 중심이나 차량 중심이나 논란거리이며 5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순신 장군 동상의 이전에 대한 찬반도 팽팽합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423회 이순신 탄신기념일(4월 28일)을 하루 앞둔 지난 1968년 4월 27일 건립됐습니다. 높이 17m(동상 6.5m, 기단 10.5m)의 청동 입상으로, 거북선 모형(높이 1m, 길이 3m)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뺑뚥린 세종로와 태평로를 통해 남쪽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풍수지리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국가 수호의 의미로 건립됐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동상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동상을 둘러싼 고증 논란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67년 3월 20일 착공해 13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제막식에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3부 요인, 각계 대표들이 참석해 조국을 지킨 선열의 얼과 정신을 되새기며 민족중흥의 결의를 다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막 당시 고증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연구가가 제막 당일 한 신문에 쓴 기고문에는 “이순신 장군의 출생지인 서울에 동상이 세워진 것은 국민이 한결같이 경하하여 마지않을 패사라 할 것이다. (중략) 하지만 동상이나 거북선 모형은 정확한 고증하에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이론이 있다. (중략) 갑옷은 전투를 위한 활동복이므로 무릎을 내려갈 수 없다. (중략) 칼이 작대기 같다, 칼은 굽어야만 잘 베어진다.





〈사진〉 1970년 세종로의 모습.

(중략) 두 다리를 너무 벌린 자세는 당시 예절상 재고할 점이다. (중략) 장군은 뛰어난 명궁이다. 활을 든 장군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중략) 거대한 동상에 비해 거북선 모형이 너무 빈약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도 “충무공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세계 해전사상에서도 큰 가치를 남긴 분이다. 그로 미루어 이번 동상은 너무 작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 (중략) 이왕 만들 바에는 고증을 정확히 해서 당시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77년에는 서울시에 시민들의 항의가 들어와 시가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영정심의위원회에 정확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동상이 현충사에 있는 영정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항의 내용은 칼집이 오른손에 잡혀 있어 항복하는 장군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얼굴도 현충사의 얼굴과 달라 후세 교육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갑옷이 발목까지 내려와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어울리지 않으며 거북선이 동상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유로웠던 50년 전 광화문광장

〈사진〉은 1970년 세종로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2009년 차량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됐습니다. 옛 모습인 육조(六曹) 거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로 중앙에 길이 557m, 너비 34m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그해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높이 9.5m의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섰고, 동상 지하 공간에 ‘세종이야기’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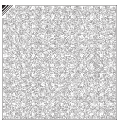
지금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아 복잡하지만 50년 전에는 한산하고 여유로웠네요. 광화문 뒤로 중앙청이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 정부종합청사(현 정부서울청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청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해체, 철거됐습니다.

사진 고(故) 김천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자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가짜 황석영을 만나다





농경시대를 벗어나 가치 중심이 '돈'으로 옮겨가는 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때, 미아리고개 너머 개운산 북쪽 자락에 붙여 지은 학교, 높은 산에 눈이 남아서 봄날에도 불현듯 차가운 바람이 소스라치게 불곤 했다. 강의를 시작한 첫날엔 문예창작과 4강의실이 빼곡했다. 100명이 넘었다는 수강생 중엔 남학생이 훨씬 많았다. 우리는 대개 어린 날부터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인, 그러나 그 꿈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무모하고 황막(荒漠)했을 것이다. 서로 낮이 설지만 어쩌다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걸고 싶으면 고향부터 묻는 게 순서 같았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 나고 자란 학생은 가뭄에 콩 나듯 했고 대개 말투가 사뭇 다른 산지지방에서 온 학생들이었다. 먼 제주도로부터 강원도 동북쪽에서 온 청춘까지.

하여간 통성명을 하고 전공을 묻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을 넓혀가는 게 보통의 방법이었다. 이럴 때였다. 어떤 남학생 하나가 내게 관심을 보였다. 낮빛이 가무잡잡하고 남자 키론 중간은 될 듯싶었다. 인상은 다부졌다. 약간의 경계심과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의 접근 반경으로 엉거주춤 들어섰다. 그가 묻는 말에 딱딱하게 대답도 했다. 이를 테면 신원증명서를 말로 제출하는 순서였다. 그다음의 진술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장차 무엇이 되고 싶은가, 였다. 나는 심장이 불타다가 얼어붙곤 하는 질병증상을 억누르며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춘문예나 사상계로 등단하고 싶다는 포부도 말했다. 바로 이 순간 그가 내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을 했다. 자신은 이미 고등학교 때 사상계로 등단을 한 사람이란!

“입석부근……요?”

경복고등학교 학생으로 신인상에 입상한 황석영이 쓴 소설 제목을 말했다.

“내가 그 황석영이야!”

나는 찰나에 정신 줄을 놓쳤다. 하늘의 별 하나와 마주 앉아 있더니!

“……소설가가 되려면 사회를 알아야 해, 사회의 밑바닥을……경험을 쌓아야 해!”

그는 대강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하여간 '타인의 삶을 체험'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그 도움의 첫 번째 실천이 '서울역' 체험이었다. 그는 바쁘지만 나를 위해 그런 시간을 내고 서울역엔 아는 '형님'이나 '동생'들이 많다고 했던 것 같다. 그 당시 서울은 5년 사이에 인구가 100

만 명이 늘었고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간 젊은이들의 외화송금에 월납파병 장병들의 송금으로 뭔가 들뜨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국토개발이란 소재로 제2한강교가 생겼고 '불도저'란 별명을 얻게 될 30대의 김현옥이 시장으로 부임했다. 무언가 가난해선 안 되며 잘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정치권력 상층으로부터 아래로 무책임하게 살포되는 분위기였다. 서울역은 도시와 농촌이 맞닥뜨리는 대문이고 광장이었다. 밤새워 기차에 시달리며 새벽에 내린 도시물정 모르는 순진한 농촌 사람들을 '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사기꾼들은 지식인인 듯 차리고 다녔다. 어리거나 젊은 여성은 사창가로, 남자는 알거지로 만드는 기술을 요술처럼 부리며 사는 부류였다.

황석영은 이런 곳, 그러니까 서울역 광장의 건너편, 양동이라고 불리는 매매춘 집단구역의 아래쪽에 있는 '다방'으로 데려갔다. 다방은 마치 기차처럼 공간이 길쭉했다. 그는 나를 안쪽자리에 혼자 앉혀놓고 자신은 부지런히 들락거렸다. 학교에서 소설을 이야기하던 그와는 판사람 같았다. 태도와 표정이 그랬다. 한참이나 돌아오지 않다가 긴장한 청년을 데려와 나를 소개했지만 그는 얼핏 보고 그냥 돌아갔다. 다방 안은 들락거리는 사람들로 난장판 같았다. 너무 많은 사람, 천장으로 올라가 부딪고 내려오는 무수한 말소리, 뿌연 담배연기, 자리를 미끄러지듯 돌아다니며 양담배와 라이터, 손톱깎이와 손칼 등이 들어 있는 목판을 맨 소년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젖먹이 아이를 들쳐 업고 구걸하는 거지 여성……. 정말 정신이 없었다. 더군다나 황석영은 나타나지 않고 그가 말한 서울역이며 밑바닥에 대한 강의도 더는 들을 수 없었다. 그가 내게 마실 거라도 사줬던가?

나는 불길한 느낌과 실망에 시달리다가 결국 뒤늦게 나타난 황석영으로부터 '바빠서 그러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

이날 이후 황석영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1973년 등단한 이후, 황석영 소설가를 만나게 됐다. 1966년 봄날에 보았던 그 황석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있었던 황석영과의 일을 소태 씹는 기분으로 추억하며 말했다.

“나를 팔고 다니는 가짜들이 전국에 있네!”

황석영 소설가가 말했다.

글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혁신감사실 혁신기획관

초콜릿보다 달콤한 청춘의 송가

이문세와 이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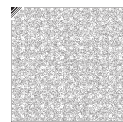
이문세는 1980년대 초반에 가수로 데뷔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과 〈파랑새〉가 어느 정도 알려지긴 했지만, 가수로서 그의 이름을 제대로 떨친 건 작곡가 이영훈과 합작한 3집(1985)부터다. 〈난 아직 모르잖아요〉, 〈소녀〉 같은 노래들은 감정과임으로 치달지 않으면서 담담하지만 깊은 울림을 자아냈다. 이영훈의 세련된 송라이팅과 이문세의 무심한 듯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가닿는 창법이 빚어낸 시너지가 절정에 이르렀던 4집(1987)은 음악 전문가들이 선정해 최근 발표한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서 13위에 올랐고, 5집(1988)은 42위에 올랐다.

밸런타인데이에 이영훈을 추모하다

둘의 협업은 〈옛사랑〉이 담긴 7집(1991)까지 이어지다 멈췄다. 이문세는 8집을 다른 작곡가들과 작업했으나, 예전만큼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9집에서 다시 이영훈을 만났다가, 이후 또 다른 작곡가들과 작업했다. 13집에서 또다시 이영훈과 만났고, 14집은 다른 작곡가들과 작업했다. 이처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둘은 더는 함께 작업할 수 없게 되었다. 대장암으로 투병하던 이영훈이 2008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알궂게도 그날은 달콤한 초콜릿 향이 진동하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였다.

지난해는 이영훈 10주기였다. 이문세는 지난해 2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이영훈의 유가족, 동료 음악인들, 팬클럽 ‘마





곳간' 회원들과 함께 이영훈 10주기 헌정공연 〈작곡가 이영훈〉을 성대하게 열었다. 둘이 마지막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세간의 루머들을 불식시키고도 남을 만큼 감동적인 무대였다.

지난해 16집 앨범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 공연까지 한 이문세는 올해를 안식년으로 삼았다. 한 해 동안 음악 활동을 잠시 멈추고 여행을 다니며 재충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영훈 11주기에는 혼자 찬물 떠놓고 기도하며 고인을 추모할까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20대 청년 둘이 연습실에서 노래를 만들고 부르던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시절 연습실 분위기를 되살린 소박한 무대를 마련하고 싶어졌다. 소극장에서 피아노 한 대만 놓고 노래하며 고인을 기리는 공연을 구상한 이유다.

이영훈 11주기 당일인 2월 14일 저녁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 〈열한 번째 발렌타인데이, 친구 이영훈〉 공연에 초청받은 160명의 관객들이 숨죽인 채 불 꺼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쾌한 피아노 연주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제는 말 못한 것뿐이에요/ 할 말은 따로 있죠 그땐 사랑해/ 햇살이 눈에 부서/ 말을 할 수 없던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버려서/ 할 말을 하지 못했죠”. 이문세-이영훈 협업의 출발점인 3집 앨범의 첫 번째 수록곡 〈할 말을 하지 못했죠〉다. 피아노에다 어쿠스틱 기타, 키보드, 바이올린, 퍼커션까지 더해 아늑하면서도 풍성한 소리를 빚어냈다.

“영훈 씨를 처음 만나고 나서 함께 작업실에서 만든 곡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당시 두 장의 앨범을 냈고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어느 정도 얼굴이 알려져 있던 때였죠. 이제는 음악적으로 평가를 받고 싶어서 좋은 음악 파트너를 찾던 중 이영훈 씨를 만났어요. 찌릿 찌릿 통했죠. 영훈 씨는 주로 연극음악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만들어진 곡을 듣고는 굉장한 실력파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또 없어요? 또 없어요?’ 하다가 결국 3집에서 6곡을 함께하게 됐죠. 둘이 거지꼴을 하고 연습실에 처박혀서 몇 날 며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 노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시절에는 이 노랫말이 어울릴까?’ 하며 단어 하나 가지고 밤을 불태우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

각납니다.”

이어 부른 노래는 〈사랑은 한줄기 햇살처럼〉. 공연에서는 처음 불러본다고 했다. 역시 이영훈이 만든 노래로, 원래는 이광조가 먼저 불러 1987년 발표했다. 이문세와 이영훈이 1988년 5집 앨범을 준비할 때였다. 앨범에 실을 모든 곡을 정해둔 상태였다. 이영훈이 말했다. “사실은 이광조 씨에게 먼저 준 노래인데, 이문세 씨, 이거 안 들어봤죠? 한 번 들어봐요.” 이영훈은 피아노를 치며 이 노래를 들려줬다. 홀딱 반한 이문세는 5집 맨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넣었다. “저는 이 노래가 왜 히트 못했는지 의아해요. 저희 둘은 너무 좋아했거든요.” 학창시절 이문세 5집 전체를 무한 반복해 듣던 나조차도 낮은 노래였지만, 사연을 듣고 나니 더 각별해졌다. 진흙 속에 숨은 진주를 뒤늦게 발견한 기분이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날 본공연에서 선보인 11곡 가운데는 〈소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같은 히트곡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슬픈 사랑의 노래〉처럼 공연에서 잘 부르지 않은 노래들도 있었다. 본공연 마지막 곡은 〈기억이란 사랑보다〉였다. 이문세와 이영훈이 마지막으로 함께 작업한 13집(2001)의 타이틀곡이다. “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픈 건/ 그대 내 생각 하고 계신 거죠”.

이문세는 자진해서 앙코르를 하겠다고 했다. 앙코르로 부른 노래는 〈옛사랑〉. 내가 이문세-이영훈 단짝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이다. “광화문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마지막 소절을 들으며 눈송이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떠올렸다. 거꾸로 올라가는 눈송이처럼 시간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문세와 이영훈이 다시 웃으며 노래를 만들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잠시 부질없는 상상을 했다. 자고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하얀 눈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하늘에서 이영훈이 웃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글 서정민·한겨레 기자 사진 제공 케이문토프엔디



유쾌한 작곡가의 진지한 오페라

로시니와 〈윌리엄 텔〉

3월, 바야흐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이 왔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동감이 넘친다. 한데 3월을 거의 매년 아쉬움 속에 맞이한 작곡가가 있었다. 놀랍게도 정작 본인은 오페라 작곡가 중 청중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선사한 작곡가 조아키노 로시니(1792~1868)다.

로시니는 윤달인 2월 29일에 태어나 4년에 한 번밖에 생일이 돌아오지 않았다. 생일도 코믹한 로시니. 그는 이탈리아 북동부 아드리아해의 페자로에서 트럼펫 주자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능력이 뛰어났던 로시니는 12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하고 인근의 대도시인 볼로냐 음악원에서 체계적으로 음악을 공부했다. 로시니는 “나는 4류 피아니스트”라며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게 불렀지만 그의 연주를 직접 들어본 사람들은 그 실력에 혀를 내둘렀다. 작곡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냈던 로시니는 평생 39곡의 오페라와 가곡, 실내악곡, 종교합창곡 등을 썼다. 40살 때까지만 오페라를 썼으며 그 이후에는 파리에 살면서 ‘테아트르 이탈리아’라는 오페라 극장을 만들고 운영했다. 본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도니제티(1797~1848), 벨리니(1801~1835) 같은 후배 작곡가들의 오페라를 파리에서 프랑스로 발표하며 그들이 당대 최고의 무대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오페라 작곡가에서 식도락가로

로시니의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점은 37살까지는 오페라를 열심히 작곡하면서 부를 누리다가 이후 갑자기 오페라 작곡을 단념하고 종교곡이나 실내악곡만 몇 편 썼으며, 사실상 은퇴한 뒤에는 후배 작곡가들을 도와주면서 자신은 정작 먹는 것에 열중했다는 점이다. 그는 미식의 도시 파리에서 최고의 식도락가(gastronomie)로 다시 한 번 명성을 떨쳤다. 그러면서 나온 메뉴가 바로 스테이크를 몇 겹으로 올려놓고 레드와인과 함께 먹는 ‘로시니 스테이크’다. 이 로시니 스테이크는 지금도 요리법이 전해져 내려온다.

로시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오페라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22살의 그를 히트 제조기 명작곡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 1816년 작 〈세비아의 이발사〉다. 서곡에서부터 명랑 쾌활한 작품이다. 〈신데렐라〉(La Cenerentola, 라 체네렌톨라) 또한 정말 즐거운 작품이다. 계부와 언니 때문에 고생하는, 재를 뒤집어쓴 아가씨 안젤리나가 천신만고 끝에 왕자님을 만나 결혼하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던 계부와 언니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다는 스토리. 이 오페라 부파(코믹 오페라)들에서 로시니의 천재성은 빛을 발한다. 발랄하고 속도감 있는 진행, 점점 빠르고 소리가 커지는 로시니 크레센도, 여러 명의 출연진이 함께 앙상블을 이루어, 모차르트(1756~1791)의 뒤를 이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치고 빠지는 앙상블 오페라의 최고봉을 보여준다.

5월 국내 초연되는 <윌리엄 텔>

로시니는 이런 오페라 부파뿐만 아니라 오페라 세리아(진지한 오페라, 정극)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다. 오페라 <세미라미테>, <호수의 여인>, <탄크레디> 같은 작품들이다. 37살 때인 1829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 그의 마지막 오페라로 초연한 작품도 오페라 세리아였다. 이 작품의 제목은 나라마다 다르게 써 프랑스어로는 <기욤 텔>, 이탈리아어로는 <굴리엘모 텔>, 영어로는 <윌리엄 텔>로 불린다. 오스트리아의 압제하에 있던 조국 스위스를 위해 독립의용군을 일으켜 빼어난 활 솜씨를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군대를 무찌르고 스위스의 독립을 되찾은 영웅 빌헬름 텔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만든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새벽>, <폭풍우>, <목가>, <스위스 독립군의 행진>으로 나뉜 그 유명한 <윌리엄 텔> 서곡이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당신이 진짜 활을 잘 쏜다면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맞춰보시오'라며 오스트리아 군대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몰아가는 장면일 것이다. 이때 바리톤인 윌리엄 텔이 부르는 곡이 있다. <Resta immobile>(움직이지 말거라)이다. 이 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스트리아의 스위스 통치 100주년 기념일에 스위스의 비열한 대관 게슬러가 길거리에 막대를 세우고 모자를 씌운 채 모두 경례를 하고 지나가라고 한다. 이때 아들 쟈미를 데리고 가던 텔은 경례를 하지 않고 비웃으며 지나가다가 감시병에게 발각되어 게슬러 앞에 끌려간다. 게슬러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텔이 활의 명수라는 말을 듣고 아들 쟈미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아 명중시킨다면 용서해주겠다고 제안

한다. 윌리엄 텔은 아버지

로서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다고 거절

하지만 게슬러는 명령을 취소하지 않는다.

아들 쟈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히려 안심시키

자 텔도 마음을 다잡고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은 후 활시위를 당긴다. 이때 부르는 아리아가 <Resta immobile>이다. 자칫 실수하면 아들을 죽일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아들의 믿음에 윌리엄 텔도 당황하지 않고 절대 움직이지 말라며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담아 명아리아를 부른다.

한국의 남성 오페라 솔리스트 성악가들로 구성된 '이 마에스트리'는 이 명곡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린 '로시니 페스티벌'에서 합창 버전으로 바뀐 불렀다.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를 합창으로 바꿔 부르는 일은 이탈리아에서도 거의 드물어 현지 음악인들과 극장 관계자들 모두가 흥분했다. 이외에도 경쾌한 즐거움이 가득한 <세비아의 이발사> 중 피가로의 아리아 <나는 이 거리의 제일가는 이발사>와 <라 단짜>(춤)도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그런데 여름에 열리는 '페자로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과는 달리 이 로시니 페스티벌은 자주 축하하지 못하고 생일이 지나가버리는 로시니를 위해 그의 생일주간에 열린다고 한다. 이 또한 로시니처럼 유머러스하고 유쾌하지 아니한가! 국립오페라단이 금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윌리엄 텔>의 역사적인 초연을 한다니 기대된다.

글 장일범 음악평론가,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 진행자, <장일범의 K 클래식 월드> 유튜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팟캐스터
그림 다나



역사를 복원하여 땅에 아로새긴

선농단 역사문화관

조선시대에는 선농단에서 왕이 몸소 밭갈이를 시범하는 친경이 끝나면 귀한 고기로 국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를 선농단에서 내린 국밥이라 하여 ‘선농탕’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의 설렁탕이 여기서 유래했다. 왕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직접 밭을 가는 시범인 친경례를 거행하는 행사를 선농제라 하는데, 그 선농제를 지냈던 곳이 바로 선농단이다. 일제강점기와 도시화를 거치며 훼손된 선농단은 현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에 유적으로 남아 있다. 선농단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선농단 역사문화관과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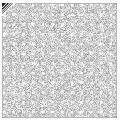
현재의 선농단이 되기까지

선농제의 역사는 고대부터 시작되며, <삼국사기>에 신라가 절기에 맞추어 세 번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한다. 그중 입춘 후에 지내는 제사를 선농(先農)이라 했다. 이후 고려시대에 성종이 친경의식을 위해 적전을 설치했고, 의종 때 선농단 제도가 잘 정비됐다. 조선 태종 때 선농단의 형태와 제도를 정비하며 선농만 지내는 것으로 했는데, 성종 대에 이르러 비로소 친경의식 전반에 걸쳐 절차를 정리했다. 이후 성종 6년에 조선 건국 이후 최초로 선농제를 지냈다. 왕이 몸소 밭갈이 시범을 보이는 친경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은 숙종 대이며, 오랫동안 중단됐던 친경의식은 영조 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거행됐다. 1909년과 1910년, 순종이 거행한 제사를 마지막으로 사직단으로 위폐가 옮겨지고 제향이 폐지됐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원잠종제조소(씨누에 보급기관)가 당시 동적전 인근으로 이전되면서 선농단 주변이 크게 변화되고 훼손되었



다. 1923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에 의해 방치되어 황폐된 선농단은 한 차례 정비됐다. 1938년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세워지고 1939년 학교 기숙사가 계획되면서 향나무를 기준으로 남향에 있었던 제단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그 부지가 서울대 사범대학으로 이어졌으며, 1957년까지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었다. 1970년 서울대가 관악으로 통합 이전하며 당시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했고, 이후 주변으로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린이 놀이터로 변했다.

1979년에는 지역주민들이 대가 끊긴 선농제를 다시 지냈다. 이에 선농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88년에 동대문구가 중심이 되어 선농제를 복원, 지역행사로 이어져오고 있다.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뿌리 찾기 사업으로 복원 과정을 거쳐 2009년 이후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조성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 현재 복원된 선농단은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상부에 있다. 건물에서 바로 연결되지 않고 도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을 조성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보면, 선농단은 총 4개의 홍살문으로 둘러싸인 바깥의 외유와 안쪽의 내유로 나뉜다. 내유에는 잔디 없이 흙만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의 제단이 있다. 제단에서 북쪽의 홍살문을 바라보면 멀리 있는 아파트 단지가 시선을 가로막는다. 600여 년 된



- 1 공중으로 떠 있는 지붕 슬래브가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며 입구를 만든다.
- 2 전시관 중정의 중심에 검은 직육면체의 '시간의 방'이 있다.

향나무를 중심으로 과거 선농단의 위치와 크기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선농단은 위치가 바뀌고 규모가 변화되었지만, 향나무는 여전히 옛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시간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우리동인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했으며 2015년 개관했다. 선농단을 기준으로 보면 지하 1층이지만 입구에서 바라보면 1층으로 콘크리트 기둥 두 개가 지붕 슬래브를 받쳐 올리고 있다. 사람들의 접근을 유도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어 입구성을 강조했다. 어두운 색의 벽체는 밝은 색의 슬래브와 경계를 명확히 하여 마치 지붕 슬래브가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인다. 외벽은 정갈하게 쌓인 석재와 가로 줄무늬 외편으로 시공되어 전통적인 분위기와 함께 편안한 느낌을 자아낸다. 세로로 긴 창은 재료와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됐다.

전체가 지하로 묻힌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지하 1층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하 1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와 전통카페가 있으며, 전시실에서 바로 지하 3층 체험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다. 지하 2층은 주차장이다. 전시관은 중정을 중심으로 경사로를 따라 관람할 수 있다. 동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벽의 가로로 비어진 창을 통해 검은 직

육면체가 보인다. '시간의 방'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선농단 역사문화관 내부에 외부공간을 관입시키는 장치이면서 전시관 중정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지하 3층은 체험형 전시 시설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와 체험학습 등이 이곳에서 열린다. 선농제 진설 체험, 외복 체험, 탁본 체험, 농기구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지하 3층에서는 직접 '시간의 방'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의 방'은 원래의 위치를 유지하는 향나무를 중심으로 남측에 존재했던 원형의 선농단을 북측에 투영한 공간이다. 하늘과 연결된 유일한 공간으로 콘크리트 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들어와 내부까지 밝힌다. 안쪽의 벽에는 작은 아크릴 기둥들이 박혀 있다. 해가 강하게 비추는 날에는 투명한 아크릴에 그림자가 만들어져 환상적인 이미지가 생겨난다. 해가 뜨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내리는지 등 날씨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비워졌다.

과거가 현재로 복원되면서 어우러진 시간과 공간은 백성에서 시민으로 변화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는 듯 보인다. 선농단 역사문화관은 아래에 숨어 있지만, 그 의미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면 좋겠다.

글·사진 이훈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천산건축 대표, 건축사이자 도시공학박사이다. 건축뿐 아니라 건축 사진, 일러스트, 칼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를 걷다>와 <건축 사진·스케치 기초부터 따라하기>가 있다.

친구, 나의 첫 번째 타인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괴괴한 소동의 시간이다. 아이들이 겪는 매일 매일은 그렇게 혼란 속에 갇혀 있지만, 종종 무심한 어른들의 말과 시선은 아이들의 맘에 가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증발한다. 어른들은 자신들도 치열하게 겪었던 일들을 되짚어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세상이 그저 안온한 평화의 시간이라 믿는(믿고 싶어 한)다. 사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아이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 어떤 관계를 맺을지 두렵다. 아이들에게 친구는 가족 이외에 처음으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첫 번째 타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가 내게 돌린 등짝이 그 어떤 것보다 무섭다.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고 고립시켜서라도, 더 강한 결속력으로 자신을 친구들과 단단히 묶어두려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토록 괴괴한 시간 속, 우리

주인공 선의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이 일 있을 게 뭐 있어? 그냥 학교 가고 공부하고 친구하고 잘 놀면 되지.”

어른들은 아이들의 세계를 안온한 일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그들은 매일 생존의 문제를 겪는다. 영화 〈우리들〉에서 관계가 어려운 주인공 선에게 학교, 공부, 친구는 모두 지독하게 어려워 풀기 힘든 숙제와도 같다.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린 소녀에게는 치열하고도 지독한 짐이라는 것을 이해할 리 없는 부모 앞에서 관계에 서툰고 표현에 능숙하지 못한 소녀 선은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지독해서 끝내 생채기를 입는, 서툰



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 그 생존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영화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았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 성장의 과정 속으로 쏙 들어간 카메라의 시선 속에 유년시절의 낭만이나 교과서 같은 교훈이 끼어들 틈은 없다. 당연히 관조적인 결말에 이르지도 않고 대안을 내놓지도 않는다. 딱히 잘못된 것도 없이 왕따를 겪는 선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편을 먹지도, 누군가를 괴롭혀 끝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보라에게 딱히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윤가는 감독은 끝내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법도 없이 11살 소녀들의 이야기를 훑어낸다.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선에게 학교는 고독하고 힘든 공간이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다. 여름방학

이 시작되던 날, 교실 앞을 서성이던 전학생 지아는 그래서 선에게 특별하다. 금세 친구가 된 두 소녀는 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래 소녀들처럼 누구에게도 쉽게 말한 적 없는 내밀한 이야기를 공유한다. 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만난 지아는 달라져 있다. 선을 계속 괴롭히던 보라의 곁에서 지아는 계속 선을 밀어낸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쌓이면서 선과 지아는 끝내 서로만 알고 있어야 할 비밀을 아이들 앞에서 토해내고 만다. 상대방의 말이, 미처 꺼내지 못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말이 되는 순간 무너져버리는 위태로운 관계를 지탱하는 것이 결국 외면과 부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오롯이 나를 방어하려는 말은 타인에게 폭력이 된다. 이미 알고 있지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다시 생채기가 되어 돌아온다.

이토록 서툰 시간 속, 우리

영화 속에는 세 번의 피구 장면이 나온다. 편 가르기에서 마지막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날아오는 공 한 번 맞아보지 못한 채 금을 밟았다며 바깥으로 몰려나버린 소녀는 여전히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난다. 윤가는 감독은 진심과 적의를 능숙하게 감춰내지 못하고 너무나 투명해 곧 깨져버릴 것처럼 아슬아슬한 아이들의 질투와 두려움을 피구 장면을 통해 내밀하게 포착해낸다.

〈우리들〉은 11살 소녀들의 풋내 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끝내 풀어내지 못했던 어긋난 관계의 어려움과 그 지난하고 답답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영화다. 무언가를 감추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소녀들은 진심에 가닿지 못하고 자꾸 서로의 마음을 빙겨내거나 뜻하지 않은 순간 뒤통수를 가격한다. 여기에 여전히 자라지도 관계가 서툰 어른들의 모습을 살포시 겹쳐둔다.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용서하는 법도 없이 미워하던 아비를 잃고 통곡하는 선이의 아버지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서툰 모습을 보이는 데, 뒷모습이 쓸쓸한 우리 어른들과 아주 많이 닮았다.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서울
문화
매뉴얼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삼일로창고극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시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SFAC 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4

5

6

■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3.17)

■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 〈2019 러시아워콘서트 1 – 이희문
× 프렐류드 × 놉놈〉

■ 퍼포먼스 〈WALK ON〉(∼3.10)

11

12

13

■ 2019 제11회 예술의전당
〈작가스튜디오展〉(∼3.20)

■ 〈중국희곡 낭독공연〉(∼3.17)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9
〈백건우&쇼팽〉

■ 연극 〈사랑을 노래한 사도요한〉(∼3.12)

■ 연극 〈청문회 전야〉(∼3.31)

■ 나윤아 바이올린 독주회

■ 연극 〈진숙아 사랑한다〉(∼3.17)

■ 연극 〈스트립티이즈〉(∼3.24)

18

19

20

■ 〈2019 서치라이트〉(∼3.22, 3.26∼3.29)

■ 2019 금난새&신포니아라움 오케스트라

■ 서초문화재단 화요콘서트 〈나라 사랑〉

■ 비올리스트 임요섭 리사이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 전시 〈반향의 거리, 뉴욕〉(∼3.20)

■ 뮤지컬 〈기타리스트〉(∼3.24)

■ 연극 〈고시원의 햄릿공주〉(∼3.24)

■ 연극 〈고양이라서 괜찮아〉(∼3.24)

25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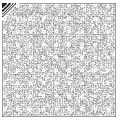
■ 김민지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서울모테트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마스터피스 시리즈 Ⅲ
〈바흐 모테트〉전곡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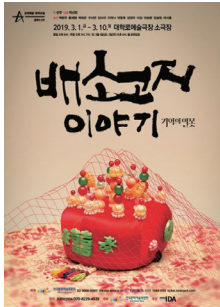
■ 서초문화재단 심산 북카페 콘서트
〈봄꽃의 노래〉

문화가 있는 날

■ 제1회 프랑코포니 연극
페스티벌(∼3.31)



THU	FRI	SAT	SUN
	1 ■ 3.1운동 백주년기념공연 <독립밴드 : 독립군가 부른다> ■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3.10) ■ 연극 <아빠 얼굴 예쁘네요>(~3.24) ■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4.14) ■ 전시 <자화상自畫像 - 나를 보다> (~4.21)	2 ■ 서울시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 ■ 연극 <날개잃은 천사>(~3.2) ■ 연극 <원의 안과 밖: 탄생비화>(~3.2) ■ <2019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3.9)	3 ■ 창작칸타타 <동방의 빛> ■ 전시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 예술가의 명상법>(~3.3) ■ 전시 <레오니드 티쉬코브 Private Moon>(~3.3) ■ 전시 <에이피 사진전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3.3)
7 ■ 가온양상불 정기연주회 <오페라 갈라의 밤> ■ 2019 서울 탭댄스 프린지(~3.9) ■ 연극 <#나만빼고>(~3.10)	8 ■ 2019 서울시향 장애플람 바부제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 연극 <고독한 목욕>(~3.24) ■ 낭독뮤지컬 <어린이왕자>(~4.7) ■ 연극 <B Class>(~6.23)	9 ■ 토요일은 삼각산청이 좋아 <우리동네 서커스쇼> ■ <오페라 음니버스> ■ 연극 <얼음공장 사람들>(~3.15) ■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곡>(~3.30) ■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4.21)	10 ■ 낭송음악극 <동주-찰나와 억겁> (~3.10) ■ 전시 <딜쿠샤와 호박목걸이>(~3.10) ■ 전시 <이매진-존 레논>(~3.10) ■ 전시 <휘어진 공간 속으로>(~3.10) ■ 뮤지컬 <해적>(~5.19)
14 ■ 서초문화재단 Art Stage in Movie 공연 실황 <발레 심청> ■ 서울시극단 <플래시 온 창작플랫폼> (~3.24) ■ 뮤지컬 <킹아더>(~6.2)	15 ■ 2019 정악단 기획공연 <정악, 깊이 듣기>(~3.16) ■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3.17) ■ 연극 <양리할아버지와 나>(~5.12) ■ 전시 <TAKE ME HOME>(~5.26)	16 ■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구스타보 두다멜 &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3.18) ■ 전시 <M.Chat 고양이>(~5.15) ■ 뮤지컬 <최후진술>(~6.9)	17 ■ 전시 <경재 정선 ; 선경仙景을 닮은 진경眞景의 세계>(~3.17) ■ 뮤지컬 <더 데빌>(~3.17) ■ 연극 <쉬어매드니스>(~3.17) ■ 전시 <카이스해랑: 모두를 위한 예술을 꿈꾸다>(~3.17)
21 ■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 라움 수아레 콘서트 <재즈가 흐르는 퇴근길> ■ 연극 <꿈속에선 다정하였네> (~3.23)	22 ■ 서초문화재단 렉처콘서트 <슬라빅 집시> ■ 피아니스트 정민성 독주회 <Sining on the Piano : 노래하듯이 피아노> ■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3.24) ■ 정동극장 기획공연 <적벽>(~5.12)	23 ■ <오페라 카니발 2019> ■ 연극 <자기 앞의 생>(~3.23) ■ 융복합 국제 미술 기획전 <불온한 데이터>(~7.28)	24 ■ 연극 <대학살의 신>(~3.24) ■ 연극 <물고양이>(~3.24) ■ 년버벌 퍼포먼스 <플라이팬(FLY-PAN)> 서울(~3.24) ■ 전시 <한묵 : 또 하나의 시(詩)질서를 위하여>(~3.24) ■ 전시 <Jasper Morrison : THINGNESS>(~3.24)
28 ■ 뮤지컬 <라이온 킹> 인터내셔널 투어(~3.28) ■ 국립오페라단 <마술피리>(~3.31) ■ 뮤지컬 <HOPE - 잊히지 않은 책과 잊히지 않은 인생>(~5.26)	29 ■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테이지 <스웨덴 커넥션 II>(~3.31)	30 ■ 토요일은 청이 좋아 <시민청 스프링 재즈> ■ 2019 마리아칼라스홀 <The Piano Room> - 이진욱 피아노 콘서트 ■ 전시 <메간헤스 아이코닉>(~3.30)	31 ■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션>(~3.31) ■ 연극 <시련>(~3.31) ■ 뮤지컬 <파가니니> - 서울(~3.31) ■ 전시 <파카소와 큐비즘>(~3.31) ■ 전시 <행복을 그리는 화가 - 에바 알머슨> (~3.31)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기억의 연못>

한국전쟁 당시 전북 임실군 옥정호 인근의 배소고지에서 200여 명의 양민이 집단학살을 당했다는 구술 기록을 토대로 창작됐다. 3명의 서로 다른 여성 캐릭터를 통해 역사의 전면에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삶에 주목한다.

일시 3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7시
(1·2일 오후 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70-8229-4939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연으로 제작 초기부터 큰 관심을 받은 뮤지컬. 동명의 드라마를 극화한 작품으로 세 남녀의 지난한 삶을 통해 한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와 동아시아 격변기 10년의 대사를 담아낸다. 원작 드라마의 총 총한 스토리와 감동을 압축적으로 무대 위에 재현해낸다.

일시 3월 1일(금)~4월 14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7시

장소 디큐브아트센터

관람료 R석 7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765-7720



전시 <자화상自畫像 - 나를 보다>

3·1운동의 함성과 그로 인해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글씨와 그림, 사진 등 독립운동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기록을 예술적, 역사적 관점으로 풀어낸다.

일시 3월 1일(금)~4월 21일(일)
오전 11시~오후 8시(월 휴관)

장소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 1, 현대전시실 2,
현대전시실 3, 실험전시실

관람료 일반 5천 원, 청소년·어린이 3천 원

문의 02-580-1300



서울시합창단 제152회 정기연주회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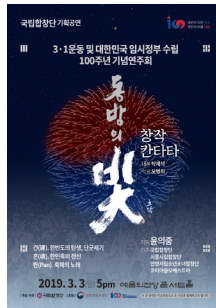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창작 초연이다.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유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일대기를 오페라 칸타타 장르로 선보인다.

일시 3월 2일(토) 오후 5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B석 1만 원

문의 02-399-1000



국립합창단 기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연주회

창작칸타타 <동방의 빛>

먼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다. 제1부 건(建)에서는 한반도의 탄생을 노래하며, 제2부 혼(魂)은 한국의 정신을 담아 한민족의 흥과 애환, 고비마다 역경을 이겨낸 힘찬 기백을 그린다. 제3부 판(Pan)에서는 한국의 음악으로 만세삼창을 부르며 자주독립을 축하하고 태평성대를 빌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는 축제의 판을 벌인다.

일시 3월 3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전석 초대

문의 02-587-8111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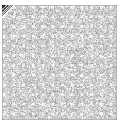
서울예술단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제강점기, 비극의 역사에 맞서 고뇌하던 시인 윤동주와 뜨거웠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린다. 2012년 초연 이래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다.

일시 3월 5일(화)~17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9만 원, S석 6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523-0986



2019 서울 탭댄스 프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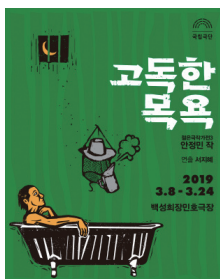
마포문화재단과 탭댄스 단체인 탭꾼탭댄스컴퍼니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진다. 3일간 4회 공연되며 탭 갈라, 재즈&탭 콘서트, 탭댄스 코미디, 거대 탭 퍼포먼스 등 좀처럼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탭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일시 3월 7일(목)~9일(토)

장소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백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02-3274-8600



연극 <고독한 목욕>

국립극단의 창작희곡 온라인 상시 투고 제도 '희곡우체통'을 통해 발굴된 창작 신작.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된 아버지를 회상하는 아들의 이야기이다. 가슴 아픈 한국사의 한 페이지를 들춰내면서 인간의 본질을 비추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작품은 시적인 대사와 '목욕탕'이라는 감각적인 공간 설정을 통해 연극의 미학적인 요소도 놓치지 않는다.

일시 3월 8일(금)~24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화 공연 없음)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1644-2003



토요일은 삼각산청이 좋아

<우리동네 서커스쇼>

신나는 드로잉서커스&마술쇼와 스크래치 도화지 그리기 체험이 진행된다.

일시 3월 9일(토) 체험 오전 11시~오후 2시,
공연 오후 3시~4시

장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선착순 100명)

문의 02-900-4300, 0073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곡>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가족사를 연극으로 끝없이 재연한다. 섬처럼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는 이들은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지만, 이러한 삶의 형태밖에 알지 못하기에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일시 3월 9일(토)~30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

장소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관람료 3만 5천 원

문의 02-912-3094



뮤지컬 <영웅> 10주년 기념공연

2009년, 안중근 의거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후 매 시즌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 러시아의 연해주, 갓 서른살의 조선 청년 안중근과 독립군들은 자작나무 숲에서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지는데...

일시 3월 9일(토)~4월 21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3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02-2250-5941

<중국희곡 낭독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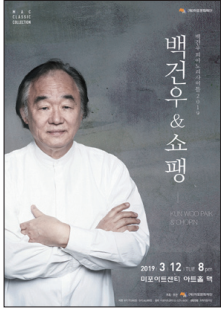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는 지난해 5월 한중연극협회와 중국문화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1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및 심포지엄'에서 중국희곡을 소개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한일연극교류협회와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을 개최해온 남산예술센터는 교류 대상을 확대해 동시대 아시아의 연극 교류를 활성화하고 희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일시 3월 12일(화)~17일(일)(시간 미정)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019

〈백건우&쇼팽〉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가 들려주는 쇼팽은 어떤 울림으로 다가올까. 마포문화재단은 2019년 클래식컬렉션의 첫 포문을 〈백건우&쇼팽〉으로 연다. 2017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국투어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새롭게 선보이는 쇼팽 전국투어 공연이다.

일시 3월 12일(화) 오후 8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관람료 R석 7만 7천 원, S석 6만 6천 원

문의 02-3274-8600



서울시극단 〈플레이스 온 창작플랫폼〉

신진 예술인 양성을 위한 ‘창작플랫폼-희곡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전문가 멘토링과 낭독회를 거쳐 최종 개발해 무대화한다. 올해는 2017년에 선정된 장정이 작가의 〈포트폴리오〉와 임주현 작가의 〈여전사의 섬〉이 무대에 오른다.

일시 3월 14일(목)~24일(일)

목·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관람료 3만 원

문의 02-399-1000



뮤지컬 〈킹아더〉

아더왕의 전설이라는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판타지적 색채를 덧입혀 스타일리시하게 재탄생시켰다. 파워풀한 아크로바틱 군무와 고음의 하모니를 완벽히 소화하는 합창이 관객을 압도한다.

일시 3월 14일(목)~6월 2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7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4만 원, R석 12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

문의 1577-3363



2019 정악단 기획공연 〈정악, 깊이 듣기〉

연주 실황을 무대 후면에 연출하여 객석에서 알아채지 못했던 연주자의 호흡과 우리 악기를 스크린으로 자세히 보고 느낄 수 있다. 정악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전하는 자연음향 기반의 무대 구성으로 감동과 깊이를 더한다.

일시 3월 15일(금)~16일(토)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580-3300



국립무용단 〈시간의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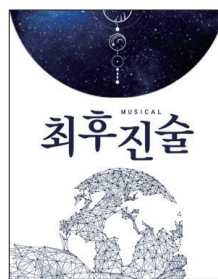
한국무용가들이 타악 연주를 하며 능수능란하게 춤을 추는 것에 감명받은 프랑스 국민 안무가 조세 몽탈보는 한국춤의 흥을 작품에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춤 속에 담긴 하나의 뿌리를 찾아가는. 작품의 제목인 〈시간의 나이〉는 과거를 추적해가며 새로운 것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세 몽탈보 특유의 동화적인 상상력이 발현되어 한국춤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케 한다.

일시 3월 15일(금)~17일(일) 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뮤지컬 〈최후진술〉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564년 동갑내기인 위대한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역사 속 인물들을 새롭게 해석한 흥미로운 캐릭터들과 신선한 이야기로 극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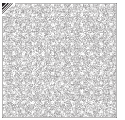
일시 3월 16일(토)~6월 9일(일)

화·목·금 오후 8시, 수 오후 4시·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6시
(3월 16일 오후 7시 공연)

장소 예스24 스테이지 2관

관람료 R석 6만 6천 원, S석 4만 4천 원

문의 02-511-4676



전시 <겸재 정선 ; 선경仙景을 담은 진경眞景의 세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물수집사업을 통해 모은 겸재 정선(1676~1759)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11년간의 정선 작품 수집 역사를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그동안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수집한 유물은 총 364점으로 그 가운데 정선의 작품은 9점이며, 수탁 관리 중인 작품은 4점이다.

일시 ~3월 17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겸재정선미술관
관람료 성인 1천 원, 학생·군경 5백 원
문의 02-2659-2206~7



뮤지컬 <더 데빌>

괴테의 <파우스트>를 모티브로 2014년 초연된 작품. 록 사운드와 클래식 선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25곡이 강렬한 무대를 완성한다. 몽환적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더 데빌>의 음악은 극 속에서 이야기이자 캐릭터이며 인간의 욕망과 파멸이라는 주제 그 자체이다.

일시 ~3월 1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2시·6시(월 공연 없음)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R석 8만 8천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1577-3363

<2019 서치라이트>

아직 무대에 오르지 않은 희곡, 창작자의 메모장 속에 잠들어 있는 미완의 텍스트, 극단의 회의 테이블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디어,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낱장의 장면 등 모든 창작 전 단계, 제작 중 과정에 있는 미완의 콘텐츠들을 미리 공유해보는, '아직·미정·미확정의 무대'이다. 올해는 낭독공연, 리서치, 쇼케이스 등으로 8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일시 3월 19일(화)~22일(금), 3월 26일(화)~29일(금) 평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758-2150, www.nsac.or.kr



뮤지컬 <기타리스트>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시각장애인 기타리스트 최강민의 휴먼 스토리를 담은 창작 뮤지컬. 삶의 끝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찾고 상처와 슬픔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일시 3월 20(수)~24일(일) 수·목·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5시
장소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
관람료 로얄석 5만 원, 일반석 4만 원
문의 02-573-1011



<양방언과 국립국악관현악단-INTO THE LIGHT>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아티스트 양방언은 공연의 메인 테마를 'Into The Light'(빛 속으로)로 정하고 국악관현악이라는 새로운 음악 세계에 도전한다. 다악장 구조로 한 곡 안에서 다양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드라마틱한 교향곡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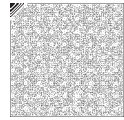
일시 3월 21일(목) 오후 8시
장소 롯데콘서트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2280-4114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

정선 아리랑의 설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아우리지의 처녀와 총각의 사랑 이야기, 정선 때꾼들이 경복궁 중수를 위해 한양으로 가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고향의 소중함을 해학적으로 풀어냈다. 전통적인 정선 아리랑과 새롭게 재창작한 창작 아리랑, 나무꾼들의 목도 소리, 사시랭이 지게 춤 등 정선 지역과 강원 영동의 전통적인 소리와 몸짓을 화려한 퍼포먼스로 풀어낸다.

일시 3월 22일(금)~24일(일)
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관람료 1만 원
문의 02-744-4331



〈오페라 카니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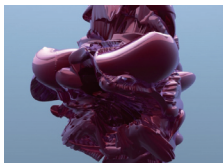
아트앤아티스트가 전속 성악가들과 매년 함께 꾸미는 드림 프로젝트. 소프라노 캐슬린 김, 베이스 손혜수, 바리톤 우경식, 테너 정호윤, 베이스 고우림, 그리고 차세대 주역 테너 김승직과 바리톤 조병익 등이 함께 오페라의 진수를 선사한다.

일시 3월 23일(토)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2만 1천 원, S석 9만 9천 원,
A석 7만 7천 원, B석 5만 5천 원

문의 02-3443-9482



융복합 국제 미술 기획전 〈불온한 데이터〉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의 '틈'과 이로부터 야기된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예술가들의 통찰과 태도를 다룬다. 전시는 '동시대 예술가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법', '디지털 메커니즘의 민주주의와 반봉건주의', '디지털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제안'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일시 3월 23일(토)~7월 28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관람료 4천 원

문의 02-3701-9500



뮤지컬 〈HOPE – 읽히지 않은 책과 읽히지 않은 인생〉

현대 문학의 거장 요제프 콘라인의 미발표 원고를 둘러싼 이스라엘 국립 도서관과 호프의 30년간의 재판을 다룬 작품이다. 유대계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유작 반환 소송을 모티브로 삼았다.

일시 3월 28일(목)~5월 26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 공휴일 오후 2시 · 6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관람료 R석 8만 8천 원, S석 5만 5천 원

문의 1577-3363



국립현대무용단 픽업스테이지

〈스웨덴 커넥션 II〉

2019년 한국과 스웨덴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무용단과 스코네스 댄스이어터가 현대무용을 통한 한국과 스웨덴의 문화예술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했다. 페르난도 멜로와 국립현대무용단의 협업작품 〈두 점 사이의 가장 긴 거리〉가 재공연되며, 장혜림 안무가와 스코네스 댄스이어터가 협업한 〈제(祭)〉가 아시아 초연된다.

일시 3월 29일(금)~31일(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R석 4만 원, S석 3만 원

문의 02-3472-1420

토요일은 청이좋아 〈시민청 스프링 재즈〉

상큼한 봄의 재즈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일시 3월 30일(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7331



삼일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 〈대한콜렉션〉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간송 전형필이 일제강점기하에서 지켜낸 국보 6점과 보물 8점이 공개된다.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고려청자〉를 포함해 총 60여 점의 작품을 간송의 문화재 수집 뒷이야기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일시 ~3월 31일(일) 화~목 · 일 오전 10시~오후 7시,

금 · 토 오전 10시~오후 9시(월 휴관)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박물관

관람료 성인 개인 1만 원,

성인 단체(20인 이상) 8천 원,

학생 개인 8천 원, 학생 단체 6천 원

문의 02-2153-0000

2019 SEJONG SEASON

세종 시즌

2019 세종시즌이 선보이는 총 48개 275회의 공연
세종 테이스트 세종을 맛보다!



서울시합창단
유관순 오페라 칸타타
3.2(토) 세종대극장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신춘음악회
4.3(수) 세종M씨어터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하나 된 우리 동요
4.5(금)~6(토) 세종M씨어터

서울시극단
창작극 <함익>
4.12(금)~28(일) 세종M씨어터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양상블 콘서트 I
4.13(토) 세종체임버홀

기획공연
2019 세종 체임버 시리즈 I
4.27(토) 세종체임버홀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뉴파대전
4.12(금) 세종S씨어터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http://magazine.sfac.or.kr>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2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은 보내주시는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015년,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에서 처음 만났고,
16년과 17년에 엽서가 채택되어 기념품과 1년 배를 받았습니.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735, 한국 화백의 기사. 대한민국 4세기 미술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 화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742~751: 직접 영화를 관람해도 빠트리기 쉬운 해설이다.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관람을 유도하는 상업적인 기사와 차원이 다르다.
762~763: 가장 관심을 끄는 기사다. 나이가 들어 서울 시내의 옛 모습, 이야기가 가장 궁금한데 몰랐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4~5년 구독하다 보니 문득 30~50대 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의 한류와 케이팝 등 10~20대 문화가 없다. 나이가 든 독자도 요즘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지금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면 50대 독자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식 문화도 소개하는 건 어떨까? 좋은 책 만들고 독자 의견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문화+서울] 편집자 hp@magazine.sfac.or.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은 주로 서울문화재단 사무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엽서

한종욱 님(서울시 도봉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처음 만났고, 2016년과 2017년에 엽서가 채택되어 기념품과 함께 1년 동안 책을 받아보았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55쪽: 한국 화백의 기사. 예전에도 세계 미술 시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 화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58~59쪽: 직접 영화를 관람해도 빠트리기 쉬운 해설이다. 결말을 제시하지 않고 관람을 유도하는 상업적인 기사와 차원이 다르다.

62~63쪽: 가장 관심을 끄는 기사다. 나이가 들어 서울 시내의 옛 모습, 이야기가 가장 궁금한데 몰랐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4~5년 구독하다 보니 문득 30~50대 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의 한류와 케이팝 등 10~20대 문화가 없다. 나이가 든 독자도 요즘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지금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면 50대 독자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식 문화도 소개하는 건 어떨까? 좋은 책 만들고 독자 의견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 후기

이번 호부터는 리뉴얼된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문화+서울]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이번 호도 읽을거리가 풍성하네요, 새롭게 바뀐 디자인 덕분에 더 예쁜 문화 플러스 서울은 덤입니다.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안녕하세요, 편집 후기 처음 써보는 홍보팀 막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문화+서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뉴페이스가 전하는 새롭고 짜릿한 문화예술 소식들 기대해주세요!

배슬기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새로운 3월을 준비한 2월은 정말 짧았습니다.

무사히 마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현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화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